Vol.192

March
April

Special theme

건강의 날's: 중증 및 희귀질환 이야기
the days of health ❷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상 - 표지 부문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운 편지

봄의 생명력처럼 활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바라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우리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환자분들을 맞이하려 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처럼, 환자 한 분 한 분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4월 호에서는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눈과 귀에 관한 질병을 알아봅니다. 세계 청각의 날(3월 3일), 세계 녹내장 주간(3월 9~15일), 세계 콩팥의 날(3월 13일)을 맞아 메니에르병, 녹내장, 급·만성신부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anyang Topic 1에서는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와 다빈치 Xi를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2022년 다빈치 Xi에 이어 작년 말 최신 장비인 다빈치 SP를 도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작년 말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로봇수술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과 로봇수술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Hanyang Topic 2에서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약 100억 원을 들여 진행된 대규모 공사를 통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최고 수준의 청정도와 공조 시설을 갖춘 수술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대대적으로 변신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의 면면을 자세히 전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은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봄의 싱그러운 생명력처럼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도전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호주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호 주



SPECIAL THEME

건강의 날's: 중증 및 희귀질환 이야기

THE DAYS OF HEALTH ❷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

봄의 생명력을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 속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각과 시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 관련 중증질환을 알아본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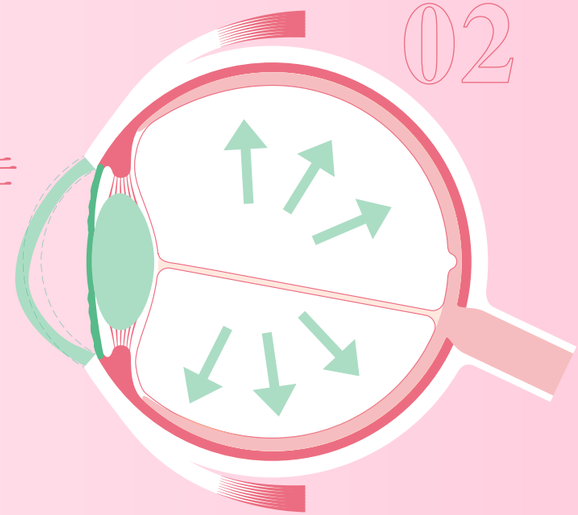


현대 사회
급증하는 만성질환
메니에르병

March
3
세계 청각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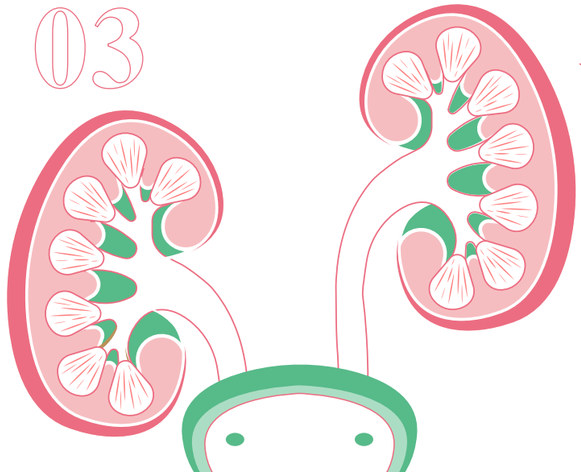
02

완치할 수 없지만,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는
녹내장



March
9~15
세계 녹내장 주간

03



소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만성콩팥병

March
9
세계 콩팥의 날





contents

Vol. 192 2025 March / April

02 **즐거운 편지** 봄의 생명력처럼 활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바라며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연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12 **Hanyang Topic 1** 다빈치 SP·Xi 도입해 정밀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16 **The Days of Health Ⅱ**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

18 **Special theme ❶** 현대 사회 급증하는 만성질환 메니에르병

20 **Special theme ❷** 완치할 수 없지만,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는 녹내장

22 **Special theme ❸** 소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만성콩팥병

24 **Hanyang Topic 2** 첨단 장비로 쾌적한 수술 환경을 구축하다

28 **주목할 만한 연구** 임신 중 카드뮴 노출, 여아 성조숙증 위험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뉴토피아〉 속 배우 박정민의 족저근막염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렘브란트와 외사시

34 **Best Partner**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병원 신소애여성의원

36 **Special Interview** 음악과 의술을 잇는 멜로디

38 **Dr. Movie** 교수와 전공의, 지금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유효할까?

40 **고마운 당신에게**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금지현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2 **언론 속 한양인**

44 **Hanyang News**

46 **Hihy 건강저장소**

48 **발전기금**

50 **이달의 이슈**

51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5년 3월 11일 통권 192호 **발행인** 윤호주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 박신영 사진. 구유성

수술 성공률 100%를 향해 연구하고 도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사



김연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천공지 피판은 본인 신체의 일부를 정교하게 떼어 내 결손 부위에 근육 손상 없이 섬세하게 이식하는 기술이다.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는 수술이라 전문 분야로 하는 의료진이 많지 않다. 천공지 피판술 대가인 김연환 교수는 수술은 빠르고 정확하며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성공률 100%를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두 번의 선택으로 접어든 성형외과 의사의 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연예인으로 태어난 사람, 의사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생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연예인으로 몇 년 후에는 의사로도 살 수 있다.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가 의사의 길로 들어선 것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전기와 전자에 관심이 많아서 전자공학과를 선택해 진학했어요. 그런데 막상 입학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 적성에는 맞지 않아 진로에 관해 고민이 많았죠. 그 시기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셨는데, 손가락 피부 일부에 괴사가 진행돼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셨죠. 아버지의 잘린 손가락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잘 치료했다면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계기로 전자공학이 아닌 의학을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자공학과에서 의과대학으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처음부터 바로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양대학교병원 인턴 시절 성형외과 교수님 두 분의 재건 수술을 보고 마음이 요동쳤다. 성형외과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닌, 상처 부위를 섬세하게 연결해 절단을 막기도 하며, 이미 절단된 부위를 이어 붙이기도 하는 진료과임을 목도한다. 그렇게 김 교수는 두 번째 선택을 통해 비로소 성형외과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인턴 중간에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선포했더니, 아버지께서 무척 화를 내셨어요. 의사라면 모름지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해야 하는데, 미용 공부를 한다고요. 그런데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없어진 신체를 다시 복원해 주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미용 성형술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재건 성형술은 신체의 기능적인 부분을 교정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도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팔과 다리를 만드는 의사

김연환 교수의 전문 분야는 상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욕창, 골수염, 안면외상, 미용성형(코)이다. 그중에서도 외상, 암 수술, 화상, 당뇨 등으로 발생한 상하지 피부 손상을 천공지 피판(광배근)으로 재건하는 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정형외과가 뼈를 만든다면, 성형외과는 피부와 살을 만들어요. 뼈도 무척 중요하지만, 피부와 살이 없으면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기에, 피부와 살은 신체가 분리된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발에 걸린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 조직이 괴사하는데, 이때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사망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다리가 절단된 당뇨발 환자는 운동력도 떨어지고, 그것이 곧 당 관리까지 이어져 생명에도 지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뇨발 환자가 다리를 보존할 수 있게 재건술을 하는 것이 성형외과의 역할이죠."

재건술의 핵심은 혈관이다. 신체는 물론 장기 이식할 때도 혈관을 얼마만큼 미세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수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혈관을 봉합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할 때 보통은 최소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이 소요된다. 장시간 수술은 심장질환, 당뇨, 투석 환자들에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취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회복이 늦어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소한의 수술 동선, 최고의 수술 팀워크를 끊임없이 연구해 총 수술 시간을 무려 2시간으로 줄였다. 빠르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성공률 99%에 이르는 훌륭한 수술은 전부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허벅지 골수염이 심한 환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절단을 권유했는데 다리를 살리고 싶어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진찰해 보니까 충분히 재건이 가능해 정형외과 교수님과 함께 10회 이상 수술을 거듭했어요. 염증을 썻어내는 작업을 반복한 후 뼈를 이식하고 피판술로 혈관을 연결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끝내 다리를 복원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 분이셨는데, 수술 후 처음으로 등산하던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죠."

해외연수에서 본 중증외상센터 시스템

김연환 교수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인트 토마스 병원(St Thomas' Hospital)과 로열 런던 병원(Royal London Hospital)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두 병원 모두 규모가 큰 중증외상센터를 갖춘 곳이다. 김 교수는 이곳에서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을 둘러보고, 현지 의료진들과 외상 데이터를 수집해 'Vein Coupler를 이용한 동맥문합'과 '피판술을 통한 외상 환자 재건'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다.

"해외 중증외상센터에서는 어떤 구조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과거 동료가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저에게 수련을 받았던 제자가 로열 런던 중증외상센터를 관장하고 있어 영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성형외과 재건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기술을 배운다기보다 함께 연구하고, 외상센터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고자 연수를 다녀온 셈이죠."

영국 런던의 중증외상센터는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사고가 나면 미리 약속된 권역 중증외상센터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해 치료한다. 응급처치부터 이송, 치료 시작까지 1시간이 넘지 않는 이유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철저히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부적절한 이동이 없는 등 다양한 요소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외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교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시스템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규모가 큰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재건술처럼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술을 홍보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수술 성공률 100%를 향해

작년 11월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학술간담회에서 대학병원 내 재건 성형 전문의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 성형술 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전공의 자격증 취득 후 고난도 수술을 교육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응급 수술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의사들의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이유이다.

"아버지의 사고를 계기로 의사가 되었지만, 저는 재건술이 재미있어요. 연구와 진료, 수술 등을 병행하며 바쁘기도 하고 힘들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로 남아 있는 거죠. 환자가 팔과 다리를 다시 쓰게 될 때마다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요."

아직 성형외과를 미용 진료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전국의 여러 병원을 돌다가 마지막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성형외과 김 교수를 찾아와 일상을 되찾은 환자가 여럿이다. 김 교수는 그런 환자들에게 안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리에 동맥경화 또는 당뇨가 심하거나, 사고로 혈관을 많이 다치면 재건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땐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수술 성공률이 낮은 무모한 도전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혈관을 뚫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시도하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버스에 깔렸던 젊은 환자가 왔었다. 다리 전체가 으스러져 피부가 다 날아간 케이스였다. 김 교수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수십 번의 수술을 진행했고 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건에 성공한다.

"외과의사의 덕목은 수술 성공률 100%예요. 그렇지만 100%라는 건 세상에 없기에 100%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재건술을 연구하고,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수술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성공률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들은 수술 성공률이 100%가 되도록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과의사의 덕목은 수술 성공률 100%예요.
그렇지만 100%라는 건 세상에 없기에 100%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글로벌 임상 연구가 이끄는 피부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⑭

피부질환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한다. 아토피 피부염, 루푸스로 인한 피부질환 등은 치료가 까다롭고 완치가 어려워 많은 환자가 수년간 고통받는다. 피부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치료법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임상 연구를 통해 많은 환자에게 선도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피부과에서 연구 활동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피부과에서는 몸을 둘러싸는 피부와 점막, 손발톱 및 머리카락 등 피부 부속기에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백반증,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질환, 모발질환, 손발톱질환, 피부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 자가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피부암, 레이저 치료 등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되기 전부터 연구에 관심이 많았기에 2011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로 부임한 뒤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처음 진행한 연구는 전신홍반루푸스(Lupus)였습니다. 루푸스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루푸스에 걸리면 얼굴을 비롯한 피부에 다양한 형태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고,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 증상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 완화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도 많아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입니다. 당시 한양대학교병원에는 루푸스 환자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루푸스 연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 보니,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아토피 피부염, 보톡스,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피부질환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Q.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루푸스 연구에 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2023년 열린 세계 루푸스 학술대회와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LUPUS & KCR)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루푸스 환자를 약 5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중 국내 루푸스 환자는 대략 2~3만 명으로 추산한다고요. 타 국가에 비해 국내 루푸스 환자 수는 적지만,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루푸스 극복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루푸스 치료 성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푸스 치료에서 피부과와 류마티스내과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루푸스는 피부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여전히 류마티스내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한양대학교병원은 피부과와 류마티스내과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류마티스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루푸스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저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류마티스병원 내 류마티스피부과에서 협진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푸스와 관련된 글로벌 임상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는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루푸스 환자들이 임상 연구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루푸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루푸스를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보톡스, 레이저 치료 등 총 15개의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푸스 연구는 해외에서 진행한 연구와 국내 데이터를 비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국내 임상이 해외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가 국내 피부과 최초로 루푸스 임상 과제를 맡으며 글로벌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연구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연구는 첫해 연구가 잘 진행되면 연구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연장된 연구가 꽤 많아요. 저는 국내 도입되는 약으로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좋고 안전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토피 피부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연구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면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가려움증 등 피부 상태를 기록하고, 임상 연구원들은 이를 분석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의 증상이 심한 환자들만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기간은 짧게는 몇 년에서 연구 내용에 따라 수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끝까지 마치려면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Q. 교수님의 또 다른 주요 연구 과제인 보톡스 연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톡스 연구에서는 주로 적응증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톡스를 다룰 수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수행 가능한 의료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로 임용되기 전 1차 의료기관에서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경험을 쌓았으며, 보톡스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를 의뢰한 제약사에 직접 방문해 공정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의약품이 임상 연구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임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연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보톡스 관련 임상 연구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글로벌 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한국에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신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도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3차 임상 연구를 진행합니다. 1차와 2차 임상은 환자와 연구진에게 부담이 크고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3차 임상에서는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성인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듀피젠트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진들도 저희의 연구 성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글로벌 연구는 국내 연구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중요한 발판이 되며, 이러한 연구 활동은 대학병원 교수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연구는 단기간에 완치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때, 질환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상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과의 라포 형성이 그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진을 신뢰하여 연구에 동의하고 연구 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도록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함께 연구하는 임상 간호사와 연구원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연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에, 끈끈한 협력 관계가 연구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 한양대학교병원 모든 구성원들이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협력을 해줌으로써 성공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임상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역시 필수적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해외 연구자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동시에 그들의 연구와 전문성을 배우는 과정이 상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쌓이면 더 많은 공동 연구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기에 해외 연수나 국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글로벌 임상 연구를 통해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직접 재배한 더덕을 가져와 선물하며,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던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럴때면 연구자로서 큰 동기와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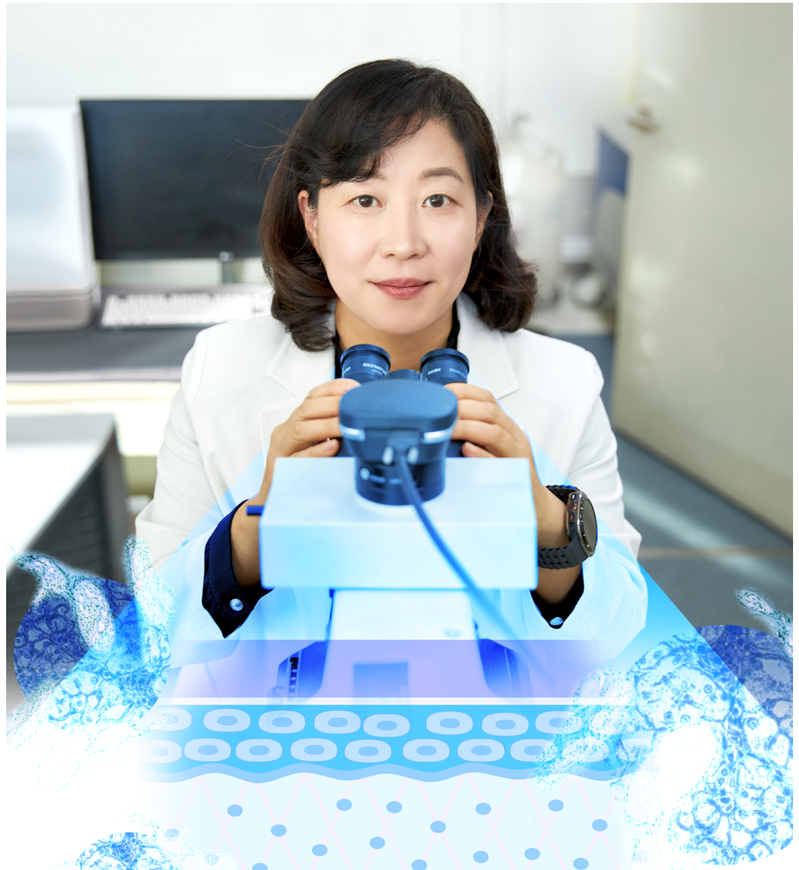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진료와 연구의 비율을 5:5로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연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은퇴까지 약 15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연구에 몰두하며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나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학병원이 중증질환과 전문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글로벌 연구에도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주연 교수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은 피부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주연 교수의 연구가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주연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에 깊은 응원을 보낸다.



정리. 편집실

다빈치 SP · Xi 도입해 정밀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도입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작년 말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해 의료원 내 로봇수술 역량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한양대학교병원은 '다빈치 SP'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다빈치 Xi'를 도입했다.
이로써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환자에게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수술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에 대해 알아본다.

최소 절개로 빠른 회복을 돕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의료계에서 로봇수술이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 발 빠르게 '다빈치 S'를 도입했다. 2008년 10월 한양대학교병원은 '다빈치 S'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하며 로봇내시경수술센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로봇수술 도입 10년 만에 로봇수술 10,000례를 돌파하고, 2024년 한 해에만 로봇수술 연 500례를 달성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역시 로봇수술을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작년 말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첫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앞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최첨단 로봇수술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병원
NEW 다빈치 SP



구멍을 여러 개 뚫는 로봇과 달리 1개의 구멍을 뚫는 것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최신 로봇수술 기기. 수술 흉터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미용상으로도 만족도가 높음

특장점

① 단일 포트 디자인으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하고, 최대 24c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어 좁고 깊은 부위 수술에 효과적
② 로봇 팔 하나에 카메라와 수술 기구 3개가 설치돼 시야를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음
③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좁은 수술실에서도 활용 가능

다빈치 SP를 활용한 대표 수술 분야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방광암
산부인과: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난소낭종, 자궁외 임신
심장혈관흉부외과: 승모판막 성형술 혹은 치환술, 삼첨판막 성형술 혹은 치환술, 심방중격 결손증
이비인후과: 갑상선암, 갑상선 양성종양, 갑상선 기능항진증, 인두암, 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외과: 담도담석, 췌장에 발생한 경계성 종양
내과: 대장암, 위암, 간 절제술
신장내과: 신장암, 방광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NEW 다빈치 Xi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로봇수술 기기로 전세계에 3,600대 이상 설치됨. 개복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함

특장점

① 수술 부위 최소 절개로 출혈, 통증, 흉터 최소화
② 수술 부위를 15배 확대하는 3D 고화질 영상 기술을 탑재해 정밀 시술 가능
③ 540° 회전하는 로봇 관절을 탑재해 정교한 수술 가능

다빈치 Xi를 활용한 대표수술 분야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 비대, 요관협착
산부인과: 일반부인과수술, 자궁근종, 난소양성종양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판막질환, 종격종양, 폐암, 식도암
이비인후과: 갑상선암, 인두암, 후두암, 경부임파선질환, 침샘종양
외과: 담낭암, 간암,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 직장암, 대장양성질환, 서혜부탈장, 소아담낭, 소장질환

고난도 수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로봇수술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수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첨단 미래의학 분야에서도 '사랑의 실천'이라는 마음으로 최상의 진료를 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양대학교병원은 다빈치 SP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다빈치 Xi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 로봇수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로봇내시경수술센터를 이끄는 배재만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다빈치 SP 도입으로 최소 침습 수술에 있어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최고의 진용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다빈치 SP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로봇수술 장비와 달리 배꼽에 약 2.5cm 크기의 구멍 1개를 뚫어서 수술하는 기기입니다. 개복 수술보다 회복 시간이 빠르고 통증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흉터도 작아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요. 미세혈관을 볼 수 있을 만큼 확대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의료진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성열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암 분야에서도 로봇수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치골 뒤쪽 깊은 곳에 위치하고 수술 시 작은 구멍인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은 상대적으로 크고 복강경 기구는 요도와 방광 문합을 시행하기에 투박합니다. 이때 로봇처럼 정밀한 수술 도구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고 정상 조직의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의 80~90%는 로봇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만큼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창면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역시 다빈치 SP 덕분에 개복 수술로 진입하기 어려운 환부를 더욱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는 주로 구강, 인두, 후두 등 목에 생기는 종양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하는 수술은 보통 구강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이때 진입 부위가 좁아 제한이 많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은 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시각의 제한과 수술 기구 진입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수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다빈치 Xi를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로봇수술센터를 이끄는 문홍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다빈치 Xi를 다양한 종양 및 양성질환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빈치 Xi는 고난도 수술에서 좋은 수술 결과를 도출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최신 수술 기기입니다. 다양한 질환에서 더욱 정교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해 앞으로도 다빈치 Xi를 지속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심명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암, 신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비뇨기 암과 각종 양성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다빈치 X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다빈치 Xi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부분신장절제술, 전립선암, 신장암 및 각종 요관 관련 질환 수술에 다빈치 Xi를 활용 중입니다. 이 외에도 100gm 이상의 심한 전립선 비대증 및 요관협착으로 인한 요관 성형술 등 각종 양성질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Xi는 기존 기기보다 로봇 팔의 자유도가 훨씬 개선돼 수술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로봇수술 도입과 발전은 의료진의 숙련도 향상과 함께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환자 개개인에 맞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최첨단 의료 기술과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의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의 로봇수술 후기



배재만

한양대학교병원 로봇내시경수술센터장

산부인과 교수

다빈치 SP를 활용한 로봇수술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로봇수술 중 개복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1% 미만으로 보고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담당하는 산부인과에서 역시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종을 수술할 때 다빈치 SP를 적극 활용합니다.



박성열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전립선암 수술에서 다빈치 S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은 단기적으로 암의 효율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배뇨기능과 성기능 보존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면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과거에는 혀 안쪽이나 뿌리에 생긴 암에 접근이 어려워 턱을 절개하는 방식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절개 방식은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을 유발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로봇수술은 절개를 최소화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로봇수술의 성공률 역시 높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 로봇수술을 선호합니다. 다만, 로봇수술은 만능이 아닙니다. 암이 생기는 위치와 전이 정도, 암의 침습 정도에 따라서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의 과정, 수술 방법의 차이 등을 담당 의사에게 상세하게 듣고, 여러 치료 옵션 중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홍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로봇수술센터장

비뇨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올해부터 경기 동부 지역 최초로 4세대 다빈치 Xi를 도입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최상의 로봇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명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다빈치 Xi를 활용한 로봇수술은 관련 합병증이 적고, 통증 및 출혈량도 적어 회복이 빠릅니다. 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다빈치 중에서 최신 기기중에 하나인 Xi를 도입한 만큼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로봇수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건강

생기 넘치는 건강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질환인 메니에르병, 안과 질환인 녹내장, 신장내과
질환인 만성콩팥병에 관해 알아본다.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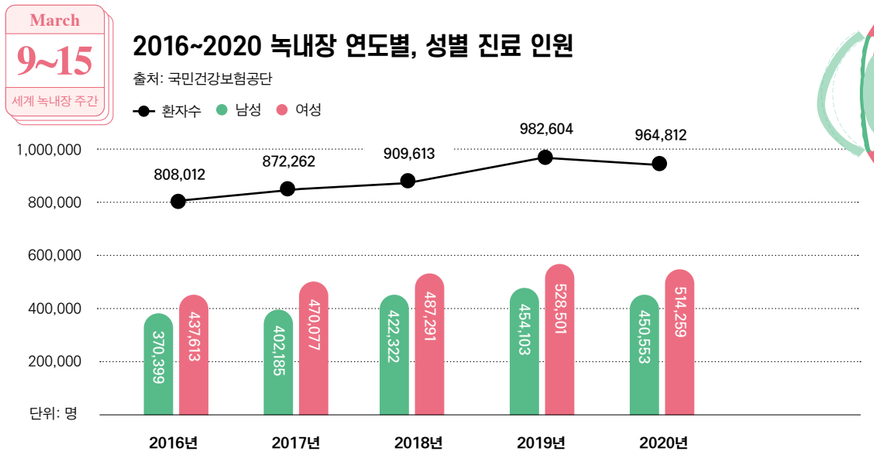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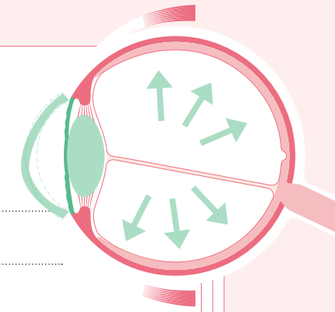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
3월 9일~15일 세계 녹내장 주간
3월 13일 세계 콩팥의 날

March 9~15 세계 녹내장 주간

2016~2020 녹내장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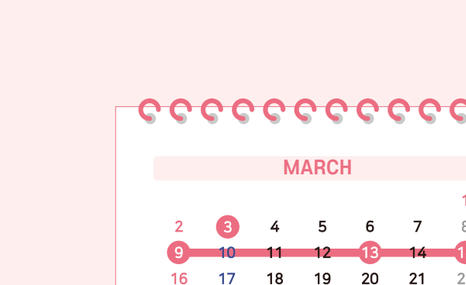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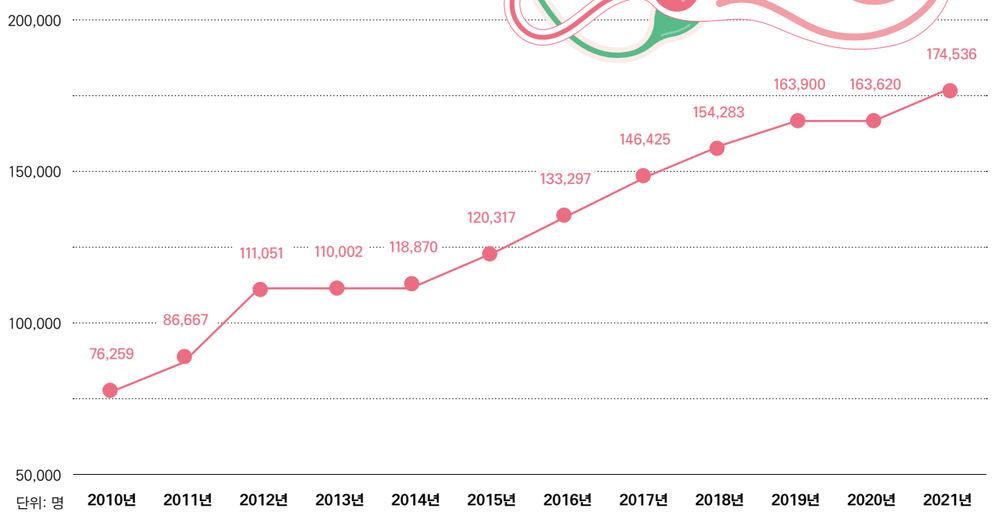


March 3 세계 청각의 날

메니에르병의 연도별 환자수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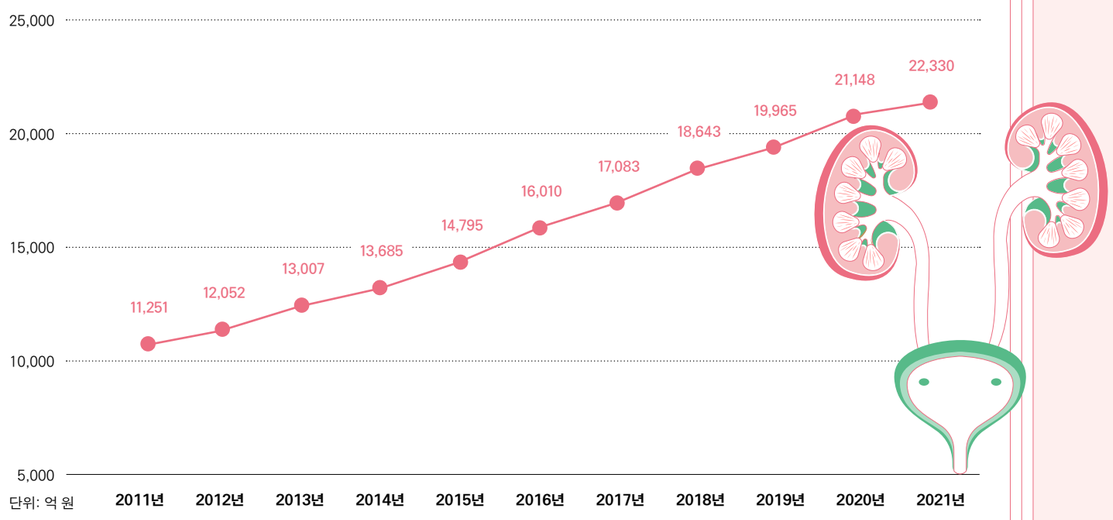




March 13 세계 콩팥의 날

2011~2021 만성콩팥병 진료비(억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통계정보(질병 소분류 통계)



글. **정제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메니에르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증상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 급증하는 만성질환 메니에르병

3월 3일은 세계 청각의 날(World Hearing Day)이다. 숫자 3과 3(3/3)을 나란히 놓으면 귀의 모양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도록 3월 3일이 선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청각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난청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청각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음 환경 증가, 개인 음향기기 사용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청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메니에르병(Ménière's disease)은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청력 저하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3월 3일, 귀의 날을 맞이하여, 메니에르병의 원인과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메니에르병이란

메니에르병은 내이(Inner Ear)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며, 특정한 청각 및 전정(균형)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어지럼증(Vertigo), 이명(Tinnitus, 귀울림), 난청(Hearing loss), 이 충만감(Ear fullness, 귀가 꽉 찬 느낌)과 같은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한쪽 귀에서 발생하며, 주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메니에르병의 원인

메니에르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림프액의 과도한 축적 내림프액은 내이(달팽이관, 전정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체액으로 청력과 균형감각을 느끼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이에 내림프액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압력이 증가하고, 청각과 평형을 담당하는 구조의 손상을 가져오면서 증상이 발생한다.

혈관 문제 및 자율신경 이상 내이의 혈류 장애,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질환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면역 이상 및 바이러스 감염 일부 연구에서는면역계 이상과 바이러스 감염이 내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메니에르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난청, 이 충만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이드라인(진단 기준)을 사용한다.

① 반복적인 어지럼증(Vertigo)
-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 어지럼증 발작은 최소 20분 이상 지속되며,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다.
- 어지럼증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② 청력 저하(Hearing Loss)
- 청력 검사를 했을 때, 한쪽 귀에서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이 확인되어야 한다.
- 난청은 처음에는 저주파수(저음)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고주파수(고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이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해졌다 좋아지는 변동성(Fluctuation)을 보일 수도 있다.

③ 귀울림(이명, Tinnitus) 또는 이 충만감(Ear Fullness)
- 이명(Tinnitus): 한쪽 귀에서 삐- 소리, 웅~ 하는 소음, 맥박 소리 등이 들리는 증상이 동반된다.
- 이 충만감(Ear Fullness): 귀가 꽉 찬 느낌, 물이 찬 느낌, 귀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함
-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뇌질환(뇌졸중, 뇌종양), 전정신경염, 이경화증 등의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이를 위해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을 한다.

메니에르병의 치료 방법

메니에르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관리, 주사 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이다. 내이의 체액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면 내림프의 압력을 낮춰 어지럼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어지럼이 심할 경우 어지럼 완화제나 전정 억제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줄일 수 있으며, 내이의 염증을 완화하고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가 처방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한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메니에르병 환자는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은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내이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신경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중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여 내이의 염증을 줄이고 청력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겐타마이신을 주입하여 전정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도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겐타마이신 치료는 전정기관의 기능을 감소시켜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대신,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메니에르병의 치료 방법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내이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내림프낭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전정 신경을 절단하여 어지럼증을 완전히 차단하는 전정 신경 절제술도 고려된다. 하지만 이 수술은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새로운 균형 감각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달팽이관을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해당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므로 다른 모든 치료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된다.

한편, 메니에르병이 오래 지속되면 청력이 점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청력이 저하된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면 보다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메니에르병은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과 정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메니에르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증상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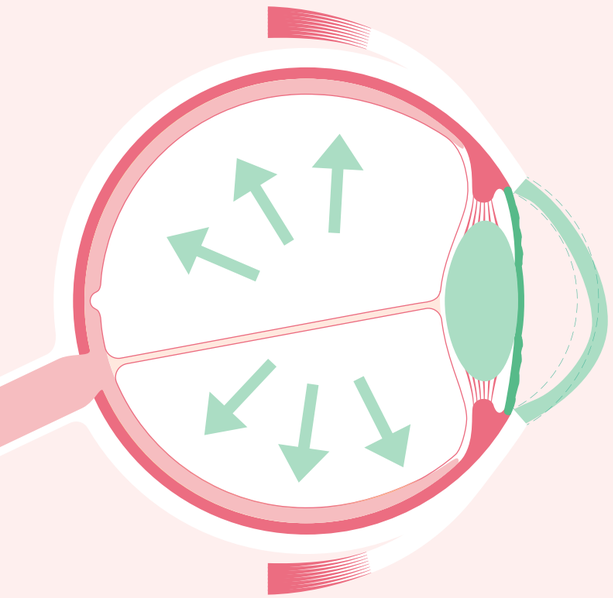
이 질환은 증상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증상을 잘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다.

글. **이원준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국내 1위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이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는 황반변성이다. 녹내장은 그 다음 순위에 꼽힐만큼 실명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가장 우선이며, 적절한 치료 옵션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완치할 수 없지만,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는 녹내장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

눈은 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므로 많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신경 다발이 바로 시신경이며, 녹내장은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병이다. 즉, 특징적인 시신경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함께 보이는 질환이다.

녹내장의 증상으로 안압 상승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과 시신경이 약해지며 생기는 증상이 있다. 안압이 상승하면 눈이 충혈되고, 물체가 흐리게 보일 뿐만 아니라 빛이 번져 보이고 눈과 머리에 통증을 느낀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껴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더러 있다.

시신경이 약해진 경우, 초기에는 시야가 막연히 흐리다는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녹내장 말기에 도달하고 나서야 시야와 시력의 불편감을 느낀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뿌옇게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빛을 감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녹내장은 크게 원발성과 이차성 녹내장, 개방각녹내장과 폐쇄각녹내장으로 나뉜다. 원발성 녹내장은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안과적 혹은 전신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녹내장이 발현하는 경우이다. 이차성 녹내장은 특정한 원인인 요소가 있으면서 안압 상승과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동반할 때 나타난다. 신생혈관에 의한 신생혈관녹내장이나 포도막염에 의한 포도막염녹내장이 대표적이다.

개방각녹내장은 눈 안에 차있는 액체인 방수가 흘러 나가는 길은 물리적으로 열려있으나, 녹내장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안압이 21mmHg보다 높은 경우, 넓은 의미로는 정상안압녹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폐쇄각녹내장은 방수가 흘러 나가는 방수 유출로가 막혔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급성폐쇄각녹내장에 의한 직접적인 안압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녹내장 말기까지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편이다.

녹내장과 안압

눈은 방수라는 액체로 가득 차 있다. 이 방수가 적절한 안압을 형성해 안구의 형태와 광학적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방수는 각종 영양물질과 산소 등을 안구에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대사물질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병원체에 관한 방어 기능도 수행한다.

녹내장에서는 안압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중에 하나이다. 시신경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치보다 높은 안압은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해 녹내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안압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상 안압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있는 환자가 많다.

정상 안압은 시신경에 녹내장성 장애를 주지 않는 정도의 압력이다. 정상 안압의 평균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인구의 안압 분포를 조사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약 10~21mmHg까지를 정상 안압의 범위로 간주한다.

안압이 정상임에도 녹내장성 손상이 생기는 정상안압녹내장의 원인에 관해서는 연구 중이다. 정상 범위의 안압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시신경이 그 안압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안압의 일중 변동이 큰 경우에도 정상안압녹내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관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녹내장 손상과 관련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녹내장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녹내장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안구의 앞뒤 길이가 긴 고도근시는 녹내장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젊은 층 사이에 고도근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녹내장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력교정술을 희망하여 수술을 위한 검사 중에 녹내장을 진단받게 되는 고도근시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검사 장비가 발달된 것도 녹내장의 조기 발견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녹내장 치료

녹내장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다. 안과에서 처방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은 망가진 시신경을 되살리거나 회복시키기보다는 안압을 낮춰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고 시신경 기능을 오래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선택해 꾸준히 관리하면 실명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희망적이다.

녹내장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나이 등 여러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대개 가장 먼저 안압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한다.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주로 점안 약물 치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폐쇄각녹내장은 막힌 길을 뚫어 줘야 하므로 레이저 치료를 선행한다. 점안 안압약으로는 안압 하강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안압이 너무 높거나 녹내장 진행 속도가 빠를 때, 약의 부작용으로 안압약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로 안압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녹내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면서 안압을 낮출 수 있는 미세침습녹내장수술 등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도입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

녹내장은 말기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녹내장 가족력, 고도근시, 스테로이드 복용력 등의 위험 인자를 지녔다면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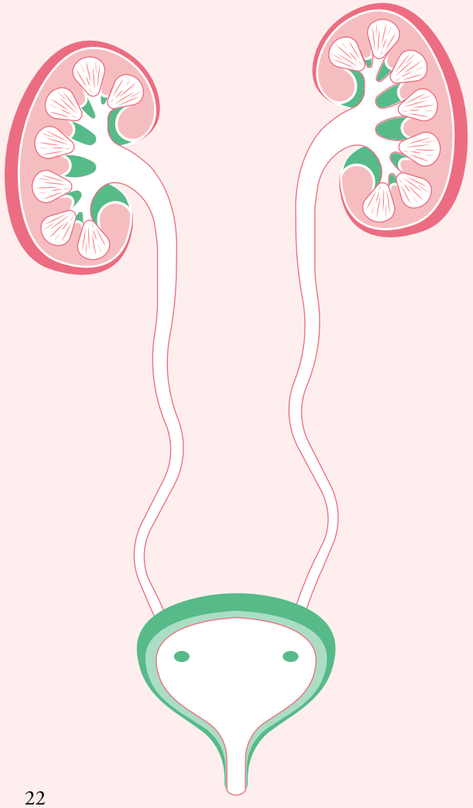
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면 안과의사와 상의하여 알맞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직 예방법이나 식품으로서 녹내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금연과 절주, 적당한 운동과 항산화 효과를 지닌 녹황색 채소와 비타민 등의 섭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 참고해 볼만하다.

글. **유미연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장내과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는가? 소변을 볼 때 신경 써본 적이 있나? 소변은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번 스페셜 테마에서는 우리 몸속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신장)”이 손상되는 질환,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에 대해 알아본다.



소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만성콩팥병



콩팥, 그 작은 거인의 역할

콩팥은 강낭콩 모양의 작은 기관으로, 양측 허리 뒤쪽에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고, 전해질과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또한,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에리스로포이에틴)을 분비해 빈혈을 예방하고, 뼈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콩팥은 하루 50번 이상 혈액을 걸러내며, 매일 50리터 이상의 혈액을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만성콩팥병이란?

만성콩팥병은 신장이 점진적으로 손상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피로, 부종, 혈압 상승, 거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콩팥병이 진행되면 말기신부전에 이르게 되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 생길까?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다. 고혈압은 전신 및 신장 내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 여과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당뇨병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만성 염증, 비만, 유전적 요인, 일부 약물(진통제 남용 등)도 신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조기 발견이 답이다!

만성콩팥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한 혈액 검사(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와 소변 검사(단백뇨, 혈뇨)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영상검사도 신장의 구조적 이상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다. 특히, 가족 중 투석을 하거나 혈뇨, 단백뇨가 있는 것과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기 발견은 의료진의 조기 개입을 통하여 신장의 예후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1. 싱겁게 먹기: 소듐(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수분 섭취 조절: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의료진과의 상담과 같이 조절하여야 한다.
3. 단백질 조절: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단백질 가공식품의 섭취를 유의하여야 한다.
4. 규칙적인 운동: 주 5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혈압 조절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
5. 금연, 절주: 흡연과 과음은 신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6. 약물 남용 피하기: 건강보조제, 소염진통제와 같은 특정 약물은 신장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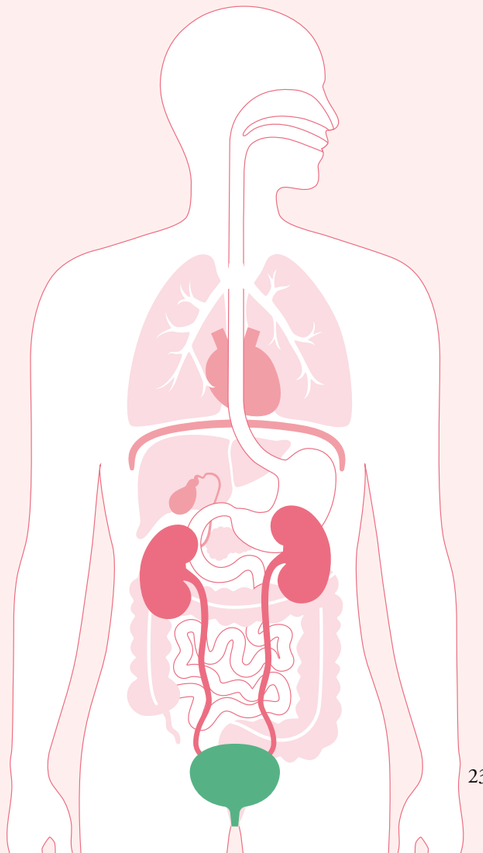
치료는 어떻게?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려면 혈압, 혈당, 체중, 지질 수치를 조절하고 저염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새로운 약제가 신장 보호 효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투석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2~3회 시행하며, 투석기기를 통해 혈액을 걸러주는 방식이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삽입된 관을 통하여 투석액을 주입하여 복막을 이용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방법으로,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적절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신장을 지키는 습관, 지금 시작하세요!

만성콩팥병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한 번 악화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우리 몸의 ‘정수기’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자! 콩팥 건강은 곧 평생 건강이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첨단 장비로 쾌적한 수술 환경을 구축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 리모델링

지난 1월 22일 새롭게 단장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응급 환자와 다양한 진료 과목에 필요한 수술 환경을 갖추기 위해 시작됐다.
보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수술 환경을 마련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을 찾았다.



(왼쪽부터) 송현수 파트장, 윤선애 팀장, 이나영 계장, 박연희 파트장, 심재항 수술실장, 유현주 파트장, 신순교 간호국장, 이은희 팀장, 이승환 원장, 김은희 계장

100억 원의 공사, 100일의 기다림
수술실 전면 리모델링으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1995년 10월 개원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술실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웃도는 최고 수준의 수술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 수준의 청정도와 최적의 공조 시설을 갖춘 수술실'이다. 공사에는 다빈치 Xi 로봇 수술기와 의료 장비 구입비 약 30억 원, 공사비 약 32억 원, 기타 장비 약 30억 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10개 수술실 리노베이션, 마취후회복관리실 및 마취과 의국 노후 천장재 교체, 냉난방기 교체 및 신설 등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4년 10월 3일 시작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입원 환자는 물론 응급 환자의 수술을 중단할 수 없는 지역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전체 수술실을 절반씩 나누어 공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공사 구역인 서측 5개 수술실을 준공하고, 이어 2차 공사 구역인 동측 5개 수술실과 마취후회복관리실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다. 1차 공사 구역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2차 공사 구역은 수술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수술실 리노베이션 설계 당시 신규 공조 설비 배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1차 공사 구역과 2차 공사 구역을 연결해야 하는 구간 작업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다행히도 수술실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됐고, 2025년 1월 22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월 4일 마취과 의국 공사를 완료하면서 약 100일에 걸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 전체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은 공사 후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의 밝은 공간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통합 제어 패널로 수술장 시설을 통제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수술실로 재탄생했다. 또한 공사를 통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고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i를 도입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 여러 분야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다.

수술실 개별 공조 및 양·음압시스템 도입으로 감염 ZERO를 실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이번 공사는 수술실 청정도 개선과 양·음압전환 수술실 설치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변화는 '더욱더 높아진 수술실 청정도', '양압 수술과 음압 수술 전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양·음압전환 수술실 설치', '저온 수술실 설치'이다. 먼저 수술실 전체에 0.3 마이크로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헤파(HEPA) 필터를 적용했다. 헤파 필터는 외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하고 실내 곰팡이, 박테리아,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제거한다. 이 외에도 수술실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벽면 하단 배기구로 배출시키는 층류환기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은 시간당 30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4회 이상 외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우수한 공조 시설을 갖추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에 따른 '감염 고위험도 수술실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앞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숙원 사업인 양·음압전환 수술실 설치도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양·음압전환 수술실은 새로운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양·음압전환 수술실은 수술실 내부의 기압을 조절해 오염된 공기의 이동을 막는다. 즉, 평소에는 수술실 내부의 기압을 외부보다 높게 형성해 외부의 오염된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양압수술실로 운영하다가, 전염성 감염병에 걸린 환자 수술 시 수술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형성해 환자의 병원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수술실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관리팀에서 리모델링 후 수술실 에어 샘플링을 채취한 결과 오염 수치가 '0'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염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다. 냉방과 난방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공기 정화 시스템이 더욱 개선돼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에게도 좋은 수술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이 외에도 일반 수술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수술해야 하는 중증환자, 외과 환자, 고난도 흉부 수술 환자들을 위해 항

온항습설비를 갖춘 저온 수술실을 마련했다. 또한 수술실을 이용하는 실무진들의 의견에 따라, 수술실 복도를 축소하고 수술실과 멸균 물품 보관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덕분에 의료진들의 이동 동선이 원활해 지고, 환경이 정돈돼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으로 각종 암질환을 치료하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최신 장비 교체와 도입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다빈치 Xi 도입과 로봇수술센터 개소가 눈에 띈다.
다빈치 Xi는 최소 절개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540도 회전하는 로봇 팔을 통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복 수술로는 접근 제한이 있던 부위도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은 다빈치 Xi를 활용해 다양한 암 질환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들은 다빈치 Xi 로봇수술을 통해 더욱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기간 역시 단축될 수 있으며, 수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든 조명 장치인 무영등을 교체해 수술 시야가 더욱 명확해졌고, 장비를 매립형으로 정리해 깔끔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실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청정도와 최적의 온도 관리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해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수술 환경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쾌적한 수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술실 유지 보수에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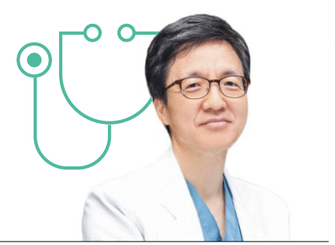


다빈치 Xi 수술실



수술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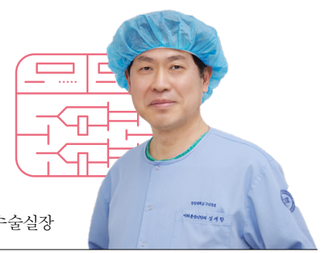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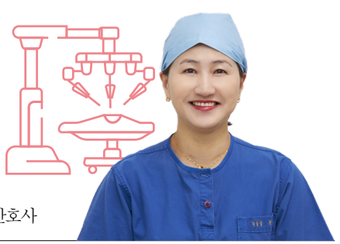
국내외에서 로봇수술이 더욱더 정밀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양대학교구리병원도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수술실 역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됐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수술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수술실장

환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청결하고 양·음압 전환이 가능한 수술실을 구축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로서 리모델링된 수술실이 마취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취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희
수술파트장 / 수술실 간호사

로봇수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던 수술실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보람차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공사를 추진해 주신 병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술실은 공사 후 중앙 컨트롤러 하나로 모든 시설이 제어되는 최첨단 수술실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쾌적한 수술실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보람있습니다. 데이 케어센터 환자와 외래 수술 환자만을 수술하는 외래수술센터도 추가로 개소하고 싶은 원대한 꿈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환자의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올해는 로봇수술 교육을 체계화하고 로봇수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현수
시설파트장 / 시설팀 과장

최고의 수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의료진과 병원 그리고 시공사의 협조 덕에 기간 내에 무사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다빈치 로봇수술실과 저온 수술실, 양·음압 전환 수술실 등을 확보하여 경기 동부 최고의 수술실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의료 기관 인증 평가에도 대비한 경쟁력 있는 수술실 환경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연구자. **최윤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신 중 카드뮴 노출, 여아 성조숙증 위험

"국내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환경 내분비 교란물질의 노출과 사춘기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였을 때 임신 중 카드뮴 노출이 여아의 조기 유방 발달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Environmental Research』(IF: 8.4) 2024년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된 'Prenatal and childhood exposure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and early thelarche in 8-year-old girls: A prospective study using Bayesian kernel regression' 중에서

성조숙증이란?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은 정상적인 사춘기 시작 연령보다 빠르게 이차성징이 발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아에서는 유방 발육이 나타나는 것이 성조숙증의 초기 증상이며, 이를 조기 유방 발달(Early thelarche)이라고 한다. 조기 유방 발달은 일부에서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일 수 있으나, 성조숙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조숙증은 최종 신장을 감소시키고, 대사 증후군이나 유방암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유방 발달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내분비 교란물질(EDC) 노출과 조기 유방 발달

최근 몇십 년간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조기 유방 발달은 대사 증후군, 유방암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내분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노출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신기와 유아기에 EDCs에 대한 노출이 사춘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소아를 대상으로 임신기 및 8세 시기의 EDC 노출과 조기 유방 발달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Children (EDC) cohort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향적 연구로, 211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임신 14–27주 동안 모집된 임산부의 혈액 및 소변 샘플을 분석하여 카드뮴(Cd), 납(Pb), 수은(Hg), 비스페놀 A(BPA), 3-페녹시벤조산(3PBA) 그리고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3종(MnBP, MEHHP, MEOHP)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동일 대상자의 8세 시점에서 태너 척도(Tanner staging)를 통해 유방 발달 단계를 평가하였으며, 복합 물질 노출 분석 방법인 Bayesian Kernel Machine Regression (BKMR) 모델을 이용하여 혼합 EDC 노출과 조기 유방 발달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11명의 여아 중 42명(19.9%)이 8세에 조기 유방 발달을 보였는데, 임신 중 카드뮴(Cd) 노출이 증가할수록 조기 유방 발달의 위험이 증가하였다(aOR per IQR = 1.80, 95% CI: 1.23–2.65). 8세 시점의 EDC 노출은 조기 유방 발달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BKMR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임신 중 카드뮴 노출이 조기 유방 발달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번 연구는 임신기 카드뮴 노출이 여아의 조기 유방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첫 번째 전향적 연구로, 임신기 환경 유해 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Environmental Research』(SCIE Q1, IF: 8.4)에 게재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보건 및 내분비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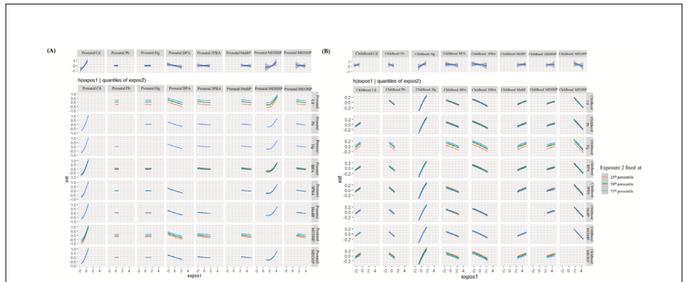


Fig. 1. Exposure-response functions illu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exposures and early thelarche at 8 years old in (A) prenatal and (B) childhood Bayesian kernel machine regression models. The upper row depicts univariate exposure-response functions, demonstrating the individual effect of each exposure on early thelarche at 8 years old, while others fixed at their median. The lower box indicates bivariate cross-sectional effects of the exposure-response function for a single element where the second element fixed at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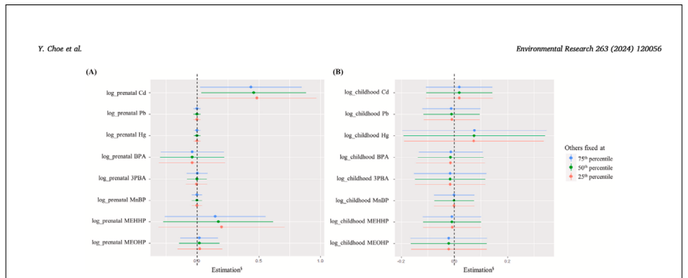


Fig. 2. The risk difference of a single chemical exposure on early thelarche at 8 years of age, when individual exposure was its 75th percentile compared to its 25th percentile, while other exposures were set at the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 in (A) prenatal and (B) childhood Bayesian kernel machine regression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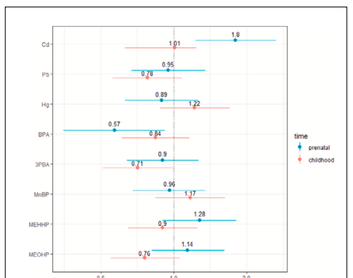


Fig. 3. Association between individual chemical exposures and early thelarche at 8 years old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markable research



◀ Prenatal and childhood exposure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and early thelarche in 8-year-old girls: A prospective study using Bayesian kernel regression

임신 중 카드뮴 노출, 여아 성조숙증 위험

무심코 지나치면 만성화되는 발바닥 통증질환

드라마 〈뉴토피아〉 속 배우 박정민의 족저근막염

**쿠팡플레이 드라마 〈뉴토피아〉의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박정민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군인 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군인을 연기하며 군화를 오래 신고 걸어 생긴 '족저근막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족저근막염은 자가진단이 어렵고, 방치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발생 시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박정민이 앓고 있는 족저근막염에 관해 알아본다.**

글. **장성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족저근막염 초기에는 휴식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발의 중요성

발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붙어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원래 4발로 서 있던 동물이 2발로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이 지면을 잘 붙잡아 줘야 한다. 그러려면 발이 바퀴처럼 동그라면 안 된다. 발이 굴러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은 밥그릇을 엎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발의 두 번째 역할은 걷고 뛰는 것이다. 발이 걷고 뛸 때는 바퀴처럼 동그랗게 생긴 것이 유리하다. 발의 뒤꿈치, 발목관절, 발가락 관절 세 군데를 중심으로 발이 돌아가게 된다. 마치 바퀴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이 동작을 하면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2배에서 4배까지, 즉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이 가해진다. 이와 같은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밥그릇을 엎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발의 모양이 납작하게 눌리게 된다.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다시 오목해진다. 마치 용수철이나 쇼크 업소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발이 펴지고 구부러지게끔 발의 아래쪽에 붙어있는 막이 바로 족저근막이다.

족저근막염의 발생

젊을 때는 족저근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근육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인대도 늘어나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발의 모양, 즉 아치가 주저앉는다. 아치가 주저앉으면 그만큼 발의 길이가 늘어나는데, 제일 아래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족저근막도 함께 늘어난다. 그러면 족저근막이 더 이상 탱탱하지 못하고 오래된 고무처럼 퍼석거린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붙어있는 뼈를 잡아당기며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인구 10명 중에 한 명은 살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족저근막염 발생 원인

원인을 알면 족저근막염이 어떤 이에게 잘 생기는지도 알 수 있다. 발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족저근막염이 잘 생긴다. 반면, 너무 안 걷고 발을 사용하지 않아 족저근막이 딱딱한 사람에게도 많이 생긴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과체중이거나 너무 많이 걷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적게 걷거나, 좋지 않은 신발을 사용할 때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한다. 높은 힐을 신거나, 아주 딱딱한 구두를 신거나, 드라마처럼 밑창이 아주 단단한 군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족저근막염 증상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아픈 것이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런 통증은 걷다 보면 완화되지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걸으려고 하면 다시 아프다. 찢어진 족저근막이 부은 상태에서 수면할 때 혹은 오래 앉아 있을 때 등 가만히 있으면 꾸덕꾸덕해지는데, 그 상태로 걸으면 해당 부위가 다시 찢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족저근막염이 심하면 염증 부위가 주위로 퍼지기 때문에 발의 중간 부분인 아치가 아픈 경우도 있다.

족저근막염 진단 방법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문진과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 방사선 촬영으로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족저근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발뒤꿈치에 뼈가 가시처럼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많다. 초음파를 통해 족저근막에 찢어지거나 부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걷는 습관에 따라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보행 검사와 발바닥에 압력이 얼마나 가해지는지를 검사하는 족저압검사를 시행한다.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MRI를 찍는다.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극단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정도 누워있으면 좋아진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어 있는 족저근막이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염진통제를 오래 먹어야 한다.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3달 정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연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소염진통제 젤을 발뒤꿈치에 밤마다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외에 발뒤꿈치에 이온영동요법으로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다. 증식요법과 같이 족저근막을 강하게 만드는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충격파와 같은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떠한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된다면 수술을 통해서 족저근막을 늘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족저근막염 관리법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출퇴근할 때는 반드시 편한 러닝화를 신도록 한다. 발의 아치가 무너졌다면 아치를 아래쪽에서 잘 받쳐줄 수 있는 깔창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많이 걷거나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 전후로 꼭 종아리와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족저근막염에 좋은 운동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다. 발끝으로 계단에 오른 후 벽에 발의 앞꿈치를 대고 무릎을 편 상태로 지긋이 눌러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틈틈이 10초 이상 눌러주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발의 코어근육을 강화하는 수건 말기 운동이다. 앉아서 수건 위에 맨발을 올린 후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당기는 운동을 양쪽 번갈아 진행한다. 발 안쪽 근육이 금방 피로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걷는 것은 괜찮을까

뜀박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꼭 러닝을 해야 한다면 발 앞꿈치로 디디는 주법을 사용한다. 좋은 운동화를 신는다면 30분 정도 걷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걸을 때 너무 뒤꿈치에 큰 충격이 들어가게 걷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령으로는 약간 양반걸음, 8자로 걸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걷는 바닥도 가급적이면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딱딱한 곳이 아닌 우레탄이나 잔디를 걷는 것이 좋다.

렘브란트가 '외사시'?

렘브란트와 외사시 Exotropia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출신지인 네덜란드와 유럽의 미술사에서 위대한 화가로 알려졌다. 그는 빛의 명암을 활용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아주 밝지만, 그림의 주변부는 매우 검게 칠해져 있다. 이런 화풍은 관찰자의 그림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여 3차원 영상의 최초 시도라고도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는 렘브란트가 빛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외사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 속 그의 눈동자 시선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사례를 통해 외사시에 대해 알아본다.

글. **임한웅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외사시는 두 눈의 시선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질환이다. 동양에서는 피곤할 때 한쪽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간헐 외사시가 많이 보인다. 간헐 외사시를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돼 항상 외사시가 될 수 있다. 외사시 증상이 발현되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야 한다.



사시란 간단하게 두 눈이 엇갈려 있는 상태이다. 사람이 어떤 물체를 주시할 때 두 눈이 물체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 눈은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여러 종류의 사시 중에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할 때 한 쪽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간헐 외사시가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권 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타입이다. 간헐 외사시는 사시 증상이 항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간헐 외사시가 악화되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쪽 눈이 계속 빠지게 되면 항상 외사시로 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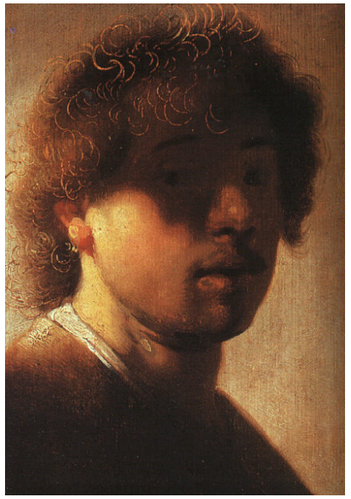
이러한 외사시의 정확한 진단은 안과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양쪽 눈의 방향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으로도 사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안과 의사들의 직업병일 수 있지만 길거리를 다니다가 눈 모양이 이상한 사람을 보고 눈에 병이 있는지 파악 가능한데 특히 사시 수술이 전문인 필자는 외사시가 심한 사람을 자주 관찰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사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실제 일반 안과의원에서 사시를 진단하거나 사시 정도를 파악할 때 질환을 놓치거나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들도 사시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사시 전문의가 있는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잠깐 보거나 한 순간의 눈 모양으로 외사시를 진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괜히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사시 환자라고 말할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도 외사시 환자라고 알려져 있다. 렘브란트의 초상화, 자화상, 성경 장면의 삽화는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업적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자화상에서 양쪽 눈의 위치로 외사시로 판명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단순 눈의 방향만으로 사시를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렘브란트가 외사시라고 진단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렘브란트가 외사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인 명도 대비와 빛의 표현이 외사시로 인하여 도드라졌다는 판단인데 오히려 외사시가 있었다면 원근감과 입체시 저하로 작품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외사시 유무를 파악한 논문에 따르면 눈의 시선 방향이나 카파각 등 사시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외사시로 잘못 판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만약 렘브란트가 외사시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면 사시가 있는 아이들에게 미술 쪽 진로를 권유해야 할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시 질환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고 소아 안과 검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외모적인 문제뿐 아니라 약시나 입체시 저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시 분야 전문의에게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여성 건강의 새 시대를 열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병원 / 신소애여성의원

신소애여성의원은 자궁질환, 갱년기, 항노화 등 여성질환에 특화된 전문 병원이다. 언니처럼, 엄마처럼 환자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소애여성의원을 찾았다.



1세부터 80세까지 찾는 병원

신소애여성의원은 1998년 인천에서 환자를 만나다가 2002년 강남으로 옮겨 오랜 시간 운영됐다. 그러다 2022년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신소애여성의원은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한 의료 노하우를 활용한 여성성형센터, 자궁근종센터, 피부·비만 클리닉, 줄기세포센터 등을 운영하며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한다. 신소애여성의원의 박정원 원장은 병원의 주력 분야를 여성질환이라고 강조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부터 80세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의원을 찾는 환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며 상처를 보듬는다고 덧붙였다.

"자궁질환을 앓는 환자 대다수는 힘들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져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은 자궁질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진료과만큼 개방적이지 않아서 불편함을 참다가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마련하고 최상의 진료 환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신소애여성의원의 이름인 신소애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한자의 독음을 붙인 것이다. 박 원장은 여성이 평생 건강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젊음으로 불꽃처럼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신소애여성의원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소애여성의원은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여성 환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나 질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뇨 때문에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환자는 굉장히 불편하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자신감까지 회복시켜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의료의 최신화를 선도한다

박정원 원장은 2023년 한양대학교에서 두 번째 학위인 생화학·분자생물학 석사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재생 의료에 관심을 두었던 박 원장이 줄기세포를 꾸준히 연구하기 위해 또 다른 학위에 도전한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박 원장의 연구 자료는 여성질환 의료의 최신화를 도모한다.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신 논문을 리뷰해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비절개 자궁근종 수술 하이푸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박 원장의 열정을 환자들도 알아준 걸까. 신소애여성의원은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산부인과만을 다루던 병원은 어느새 피부과와 내과를 함께 다루고, 종합건강검진센터까지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질환에 특화된 병원이다 보니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외 환자도 방문합니다.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편안하게 우리 병원에서 관련된 진료를 다 보실 수 있도록 조금씩 진료과를 확장했어요."

가족같은 친근한 소통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다

신소애여성의원은 한양대학교병원과도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저의 모교 병원인 만큼 한양대학교병원과는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요. 제가 줄기세포에 관심이 있다보니 줄기세포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는 한양대학교병원과도 연구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양의대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의대 18기 동기들과도 끈끈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병원과 동문회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박 원장이 내원한 환자에게 건네는 첫 마디다.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려는 박 원장의 소망이 담긴 말이다. 박 원장은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환자의 마음을 열고 치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고 강조했다.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7
문의 02-3453-5719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음악과 의술을 잇는 멜로디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005년 1+2월호 한양대학교의료원보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Classic story'라는 음악 칼럼이 시작된다. 첫 번째 칼럼인 바흐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사단조〉로 출발해 121개에 달하는 클래식과 오페라 곡이 병원보에 스며들었다.

23년 전, 어린 환자의 연주에 화답해 바이올린을 켠 오재원 교수. 병실을 가득 메운 바이올린 선율이 어느새 병원 전체 울려 퍼지며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음악에 대한 그의 특별한 애정을 알아본 홍보팀은 오 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의 음악 칼럼 집필을 제안한다. 진료, 강의,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음에도 오 교수는 펜을 들었다. 그렇게 오 교수의 음악 칼럼니스트 인생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칼럼은 바흐의 1720년 작품인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사단조〉였어요. 오직 바이올린만을 가지고 쓴 곡으로 매우 철학적인데요. 눈을 감고 곡을 들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두 달마다 칼럼을 연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첫 번째 칼럼을 완성한 후 두 번째 집필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오 교수는 덜컥 겁이 났다. 그때 오 교수의 눈에 오래된 레코드판들이 들어온다.



"부모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 때부터는 음악이 삶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벽에는 항상 레코드 판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낡은 레코드판을 꺼내 뒷면에 적힌 작품 이야기를 찬찬히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연재 초기를 지나면서 오 교수에게 음악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고든다. 음악 감상조차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닌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지휘자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주자의 감정을 느껴본다.

"칼럼을 집필하다 보니 스스로 배움이 커지더라고요. 음악을 알아야 하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음악의 본질에 대해 천착했죠."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 게재된 칼럼이 18회가 넘어갈 무렵, 오 교수의 음악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2008년 『의사신문』에 매주 '클래식 이야기'를 연재하게 된 것. 그렇게 칼럼은 차곡차곡 모여 100회를 넘어가고, 이를 묶은 이야기가 2010년 교양인을 위한 클래식 산책 도서 『필하모니아의 사계』로 출간된다.

"돌이켜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음악 칼럼니스트 인생의 초석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필하모니아의 사계』도 1~4권까지 시리즈로 출간할 수 있었고요."

그의 칼럼 속에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없다. 작곡가의 인생 이야기 등 작품 비하인드가 주류를 이룬다. 가볍고 흥미로운 이야기이기에 많은 사람이 오 교수의 칼럼을 즐겨 찾는다.

"작곡 기법이나 음악 역사와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독자들이 칼럼 페이지에서 슬프거나 웃긴 감정을 느꼈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내 기록했죠. 봄이면 사랑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겨울이면 이별 이야기로 주제를 잡기도 하는 등 계절에 맞는 감정을 위주로요."

누군가를 위해 칼럼을 쓰고, 누군가의 인생을 천착하는 과정에서 오 교수는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말했다. 자신을 깊숙이 파고들수록 타인을 깊이 이해한다는 오 교수. 가끔 힘든 일을 맞닥뜨리거나, 심신이 지쳤을 때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한다. 오 교수에게 음악과 집필은 샘물이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직업입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와 장기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이죠.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대생 때부터 자신에게 샘물이 되어 주는 취미를 찾아 지속해야 합니다."

음악과 의술, 그 두 개의 영역 속에서 수십 년을 보냈던 오 교수에게 새로운 꿈에 대해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올해 11월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어요. 전 세계 의료인으로 구성된 '월드 닥터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됐거든요.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저는 삶이 재미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음악도, 의술도, 집필도, 연주도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귀하께서는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Dr. Opera〉 칼럼을 통해 풍부한 음악적 지식과 감동을 독자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의학과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문화적 영감을 주었으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총 121회의 긴 여정을 끝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오재원 교수의 인생 ALBUM

Dr. Opera



브루노 발터가 지휘한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1번이 으뜸이다. 이 앨범을 들으면 음악을 넘어 세계를 깨닫게 되는 기분이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안톤 부르크너의 교향곡 7번은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자아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빌헬름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한
루드비히 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op. 125 '합창'〉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특히 4악장은 네 명의 독창과 4부 합창이 가세하여 〈환희의 송가〉를 노래하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Dr. Movie

교수와 전공의, 지금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유효할까?

내 인생의 영화 101



해마다 이맘때면 의과대학에 첫발을 딛게 되는 신입생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캠퍼스에 번지고, 험난한 의대교육을 마친 졸업생이자 의사면허를 취득한 초짜 의사들은 빳빳한 가운을 입은 채 병원을 누비게 된다. 인턴을 수료하고 원하는 과의 시험을 치른 젊은 의사들은 전공의가 되거나 혹은 몇 년 후를 기약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로 병원을 떠나기도 한다. 3, 4년 동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면서 정들었던 전공의들은 해당과의 전문의가 되어 전임의로 혹은 개원가로 혹은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2월은 이들을 보내는 송별회나 졸국식(卒局式)으로 저녁약속 잡기가 바쁜 시기였다.

10여 년 전에 스승과 제자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40대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의과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듯하다. 그런데 작년 2월 18, 19일을 기점으로 병원과 학교에는 사제관계로 규명되는 후배이자 제자들이 없어져 버렸다.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이 봇물이 터지게 되면 반복적인 파업이 생겨왔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학습효과에 의해 모두들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병원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야만 하는 곳이다. 심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직업적인 희생감과 책임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 의사 한 명으로는 환자 치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의료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노동집약적인 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후배의사 양성은 기댈 곳 없는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학생이 강의실을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다시 예전의 사제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다. 전문의인 교수는 자기 이름을 표방하고 환자 진료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의대 교수들은 일선 의료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제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동조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간착취자, 기득권 수호자, 제자를 버린 선생이라는 비난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제자들의 움직일 수 없는 언명(言明)이기도 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다. 인간관계란 맺기는 어려워도 끊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한 덧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지식과 꼼수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를 바탕에 깔 수 있는 인성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만 할 텐데 현재로서는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무지 실마리를 풀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사람이 봄벼야 할 인턴 숙소와 전공의숙소, 전공의공부방이 먼지만 쌓인 채 어둡고도 고요한 공간이 된 것이 슬프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가 당장이 아닌 수년간 지속되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알기에 무력감과 함께 두려움이 앞선다.

첫 수업 때 '시의 이해'에 대해 설명한 페이지를 찢어버리라는 영어 교사 키팅 선생님은 오로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출세를 하기 위해 보내진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발밑을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보기 위해 책상에 올라가고, 셰익스피어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나와 정원을 걸으며 시구를 읊고 공을 차게 하면서, 작고한 학교 선배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특별하게 만들라는 carpe diem 정신을 설파한다. 본인의 희망은 무시한 채 의사가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강요에 시달리던 닐 페리는 연극 한 여름밤의 꿈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깨닫게 되지만 심한 꾸중과 사관학교로의 강제전학을 명받고는 자살을 하게 된다. 〈죽은 시인의 사회, 1990〉의 마지막 장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떠나가게 되는 키팅 선생님을 보내며 권위와 억압의 상징인 책상 위에 올라 월트 휘트먼의 시구절인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는 학생들의 항거는 타인의 강요에 의한 관성적인 선택이 아닌 자유의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심오한 장면이다. 작금의 사태와 맞물려 과감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회한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다.

완벽한 곡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이 되어버린 홀랜드는 보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학교의 빡빡한 수업시간, 마지못해 맡게 되는 엉망진창의 오케스트라,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삶의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 소중한 아들 콜이 감염질환을 앓은 후 청각장애가 생기게 되자 그는 아들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하고 집안에 무심해진다. 비틀스의 리더 존 레논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려다 이내 포기해버린 그에게 아들 콜은 자신도 비틀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음악을 느낀다고 수화로 호소한다. 아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느낀 홀랜드는 특수학교에서 농아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본인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존 레논의 노래 'Beautiful Boy'를 온몸으로 노래하면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홀랜드 오퍼스, 1995〉 마지막 부분에서 학교가 긴축재정을 위해 음악 수업을 없애게 되자 교직생활 30년을 뒤로 하고 방에서 짐을 챙긴다. 학교에서 나오려던 그의 귀에 음악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따라 찾아간 강당에서 자신의 퇴임을 위해 준비된 콘서트를 보게 된다. 30년간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그의 작품은 그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결성한 오케스트라였다. 홀랜드의 초연작품이자 그동안 묵혀 놓았던 아메리카 교향곡은 홀랜드의 지휘로 처음이자 마지막 연주를 하게 된다. 홀랜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30년에 걸쳐 추구했던 마음을 움직인 교육은 결국 제자들을 하나로 묶게 되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모색했던 그의 인생은 전문 음악가로서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으로는 성공한 것이라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게는 사춘기의 궁금증을 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나가셨기 때문이다. 82년 여름 무렵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수술을 하셔야 했고 나는 그의 권유에 의해 문과를 지원했다가 의사가 되기 위해 이과로 바꾸는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가장이 부재할 때 보통 이를 대체할 멘토를 찾게 되는데 내 경우는 집 앞 만화가게의 곱사등이 주인아저씨였다. 〈시네마천국, 1988〉에서 영사기사 알프레도로 인해 아빠가 없던 꼬마 토토는 외롭지 않았다. 성장기를 함께 하면서 청년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과 번민으로 고향을 떠날 것을 강하게 권유한 알프레도였지만, 수십 년 후 그의 부음을 듣고 귀향한 후, 알프레도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키스 씬만 나오면 종을 쳤던 신부님에 의해 잘렸던 빛바랜 필름 조각을 영사기에 돌리면서 어른(거장 영화감독)이 된 토토는 격정의 눈물을 흘린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나는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지. 도제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암묵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복종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수술실에서, 회진을 돌면서, 컨퍼런스에서 혹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와 인간적인 담소가 사무치게 그립다. 영원히 같은 편이 되어 줄 거란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에 몹시 괴롭다. 사제관계에 대해 너무도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즈음이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지내고 잘 버티렴. 힘없는 스승이 뇌까려 본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아기와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금지현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출산은 기적이다. 2021년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금희경 님은 29주라는 이른 시기에 태어난 아기를 무사히 품에 앉을 수 있었다. 작은 아기가 온전히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준 의료진 덕분이었다. 금희경 님은 다영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세심하게 보살펴 준 금지현 교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금지현 교수님께



기적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년 전, 어깨에 종양이 생겨 부모님 댁과 가까운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라 산부인과와 피부과 진료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겪은 경험들이 기분 좋게 남아 있어 다영이를 가졌을 때 한양대학교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지현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금지현 교수님께서는 저와 성씨가 똑같고, 성격도 비슷해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에 환하게 웃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금지현 교수님과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다영이의 출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뱃속에 다영이를 품고 지내던 중 생각보다 아기가 잘 성장하지 않아서 초음파 검사를 자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날은 임신 주수 29주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셨어요. 당시 다른 병원에서 초극소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난 아기가 매스컴을 탈 때였거든요. 저는 아이를 함께 품어온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출산을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금지현 교수님께서 자신을 믿어 달라고 말씀하셨고, 교수님의 강한 의지와 진실된 마음에 이끌려 수술을 진행하여 다행히도 다영이는 970g의 이른둥이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영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70일을 보내고 따뜻한 집으로 왔습니다. 다영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금지현 교수님 덕분입니다. 또한 저와 아기를 정성껏 보살펴 주셨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써주신 만큼 앞으로도 다영이를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희경 드림

출산을 차분하고 강하게 견뎌 낸 금희경 님께



건강하게 잘 자란 다영이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근무 중입니다. 수많은 산모와 신생아를 보았지만, 금희경 님과 다영 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금희경 님을 처음 봤을 때 특별히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희경 님의 나이가 만 30세로 젊어 고령 산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시고 침착하신 성격이라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영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기를 넘어가면서 아기가 잘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영이가 생각보다 잘 크지 못해서 지속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검사 소견 상 아이를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키우는 게 아이와 산모에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분만하는 것은 산모에게 고민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금희경 님은 강한 엄마입니다. 제 결정을 믿고 차분히 따라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제손으로 970g의 다영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영이는 초음파 검사를 할 때부터 미인이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예쁜 아이였습니다.(웃음) 출산 후 제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출산 전후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어찌 보면 업무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어여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영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 출산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영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금지현 드림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 2025년 1월



SBS 모닝와이드 김진남 교수
독감치료제가 수상하다?



KBS 뉴스 박계영 교수
걷기와 치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재현 교수
'지하철 쪽벌남' 근손실 때문이다?



SBS 모닝와이드 이봉근 교수
실손보험 강제전환

On-Air



SBS 모닝와이드 이효영 교수
안주와 숙취의 상관관계는?



KBS 뉴스 김희진 교수
걷기와 치매



채널A 알아야산다 고성호 교수
치매의 싹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호 교수
하지 삼절 건강법

한양대학교병원

정규환 비뇨의학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2월 2일/ 신장암 **하태경 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2월 16일/ 고도비만 **김희진 신경과 교수** SBS [뉴스토리]/ 12월 21일/ 치매여도 괜찮아/ SBS [모닝와이드]/ 12월 24일/ 수상한 소문_치매/ KBS [뉴스]/ 1월 1일/ 치매환자 사망률 30% 낮추려면 걷기가 답이다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2월 22일/ 소아 천식 **이효영 소화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월 25일/ 수상한 소문_안주가 숙취를 부른다? **김진남 감염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월 1일/ 수상한 소문_독감치료제가 수상하다?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KBS [뉴스]/ 1월 1일/ 치매환자 사망률 30% 낮추려면 걷기가 답이다/ KBS [뉴스]/ 1월 2일/ 치매환자 사망률 30% 낮추려면 걷기가 답이다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1일/ 고혈압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2일/ 위암예방과 조기위암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10일/ 전립선암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YTN/ 1월 13일/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 · 소비자 '반발'/ SBS [모닝와이드]/ 1월 16일/ 실손보험 강제전환? **김우현 심장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23일/ 흉통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하이닥] 건강온/ 1월 24일/ 당뇨 유형별 관리법, 알고 있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민균 신경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31일/ 뇌수막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준영 혈액종양내과 교수 구리비전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12월 6일/ 최신 항암 요법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11일/ 백년습관, 자세교정/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25일/ 춤에 관한 팩트체크 라인댄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3일/ 노쇠 정도 알 수 있는 '한발서기'/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29일/ 백년습관, 하지 삼절 건강법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18일/ 백년습관, 만원의 행복 운동/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10일/ '지하철 쪽벌남' 근손실 때문이다? **여유미 호흡기내과 교수** 구리비전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1월 10일/ 당신의 폐는 몇 살입니까? **고성호 신경과 교수** 채널A [알아야산다]/ 1월 17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2024년 12월 2일(월)



2024년 12월 3일(화)



NEWS
News Paper

2024년 12월 9일(월)



2025년 1월 25일(토)



한양대학교병원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일/ 정교한 로봇 수술, 자궁근종 제거술에도 효과적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일/ 혈당 조절 잘 안 되는데 다음 · 다뇨 · 체중감소? 급성 합병증 위험 신호/ 서울신문/ 12월 24일/ 원푸드 · 굶기는 요요 부를 뿐… 좋아하는 운동 꾸준히 하세요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3일/ 찬바람 불고 모임 잦아지니 목 칼칼… 따뜻한 물이 최고의 보약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9일/ 치매 · 폐암보다 더 무서운 항생제 내성…감기 · 코로나엔 항생제 피하세요/ 메디칼업저버/ 1월 14일/ 추서 유행 중인 HMPV, 코로나 팬데믹 재현 우려? **박진석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9일/ "꿀잠 좀 자고 싶다"…이런 분들 '방 온도'부터 체크를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0일/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하고 돈다면 기립성 저혈압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2일/ 천식도 고령화… 65세 이상 8명 중 1명이 앓는다 **김희진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16일/ 'ㄱㅈ' 단어 1분간 다 대봐라…뇌 노화 아는 간단 테스트 **성원재 신경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7일/ 공격성에 없는 말 지어내는 '작화증'까지… 술 때문이었네, 그날/ 헬스코리아뉴스/ 1월 8일/ 40대 남성에 근력약화 · 발기장애로 발현하는 희귀질환 '케네디병'/ 머니투데이/ 1월 31일/ 술기운 빌리지 마세요…해외여행 복귀, 건강한 시차적응 '꿀팁' **이건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30일/ 겨울만 되면 쓸쓸하고 우울한 당신… 따스한 '햇볕 샤워' 어때요/ 머니투데이/ 1월 29일/ "암세포 폭발시킨다"…에능 보다가 빵 터진 웃음, 놀라운 효과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데일리SPN/ 1월 6일/ "OO 이라며?"…'악성 가짜뉴스'에 두 번 우는 참사 유가족들/ 머니투데이/ 1월 20일/ "열받아" 못 참고 난입…뇌 '브레이크' 손상 때문? 분노 조절 어려운 이유/ 머니투데이/ 1월 28일/ 정치 얘기하다 '욱', 물건도 부숴…고삐 풀린 분노, '이곳' 문제일 수도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9일/ '등심 레어' 먹고 설사…변기뚜껑 열고 물 내리니 온가족 식중독, 무슨 일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외 16건/ 1월 9일/ 치매 환자, 진단 후 신체활동 지속 시 사망률 감소된다/ 세계일보/ 1월 10일/ 치매 진단 후 가벼운 신체활동도 생존율 높인다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11일/ "밤샘 시위 버텨보자"…몸 녹이려 마신 '커피' '녹차' '술' 큰 일 납니다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동아일보/ 1월 25일/ "골프연습 중 터진 뇌혈관… 방치한 고혈압이 사람 잡을 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기영 산부인과 교수 한국일보/ 12월 3일/ '여성 감기' 늘어나는 겨울, 질염 재발 막으려면 **서현민 피부과 교수** 하이닥/ 12월 24일/ 흔하게 걸리는 '무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적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양대학교병원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원장단과 많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본원의 설립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되새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Love for the better, Hope for the best'라는 올해의 슬로건 아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

한양대학교병원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선정됐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진료과 소아질환 담당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소아 응급 협진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24시간 상시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말과 휴일에도 아이들과 보호자가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16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간호사의 날'은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사한 지 1년을 맞은 새내기 간호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환자경험 비전 선포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2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환자경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사랑의 실천으로 환자경험 향상 실천, 환자 존중과 배려, 환자 결정과 참여를 존중하는 병원 문화 조성 등의 목표로 구성됐다.

이형중 병원장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본원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이에게 따뜻한 경험을 선사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전반기 정년퇴임식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24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오랜 시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년퇴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I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이 지난 2월 7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우성국제회의실에서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AI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ARE YOU READY FOR THE FUTURE? 인간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주제로 송지성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섰으며, 전 교직원이 참석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참여자 모집기관 선정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참여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민 100만 명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 등을 통합하여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김인아 책임연구자(직업환경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의학연구원, 건강검진센터, 국제협력병원, 인체유래물은행 등 원내외 관계 기관의 협력하에 2028년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25년 교직원 신년 하례식 개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2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원장단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승환 병원장은 "지난 의료계의 큰 혼란에도 지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모든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 획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이다. 지용배 기관생명윤리위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IRB 신뢰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단 '펄스장 절제술(PFA)' 장비 도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환철 교수팀이 최근 심방세동 치료에서 한단계 도약한 첨단 파라펄스 펄스장 절제술(PFA)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펄스 전기장을 이용해 기존 치료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주변 기관인 식도나 횡경막시경 및 혈관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박환철 교수는 "이번 파라펄스 PFA 시스템은 환자 치료 결과와 안전성을모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심방세동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24일 신관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승환 병원장은 축사에서 "오랜 시간 병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본원이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2월 5일 사회복지팀, 소아청소년과, 건강증진센터의 주관으로 이주 배경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12차 한양 류마톨로지 리뷰 코스 개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한양 류마톨로지 리뷰 코스(12th Hanyang Rheumatology Review Course, HRRC)'를 개최했다. 한양 류마톨로지 리뷰 코스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국내 류마티스 분야의 권위자들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강연하는 자리이다.

2025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2월 16일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2025년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김태환 병원장은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개원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진료 트렌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인물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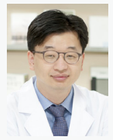
배상철 교수팀, 류마티스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ARD 게재

한양대학교의료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 연구팀(한양대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방소영, 이혜순)과 경희대학교 김광우 교수팀이 루푸스와 연관된 유전 변이들이 루푸스 발병 전 단계에서 자가항체 형성과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류마티스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ARD(IF: 20.3)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Genetic burden of lupus increases the risk of transition from normal to preclinical autoimmune conditions via antinuclear antibody development'이다.



박환철 교수, PFA 이용 부정맥 시술 성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장내과 박환철 교수가 최근 도입된 파라펄스 펄스장 절제술(PFA) 장비를 이용해 심방세동 부정맥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다섯 번째 시술이다.



박선철 교수,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연구 편집위원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교수가 지난 1월 1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정신의학 연구'에서 부편집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편집위원상을 수상했다.



이현정 과장,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우수강의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현정 과장(소속 의학학술정보실)이 지난 1월 1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정신의학 연구'에서 부편집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편집위원상을 수상했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5년 1월 ~ 2월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TV



김현기 교수 루게릭병 | 성원재 교수 케네디병 | 김진수 교수 감염질환

이현주 교수 이른둥이 | 임영효 교수 협심증 | 배재만 교수 로봇수술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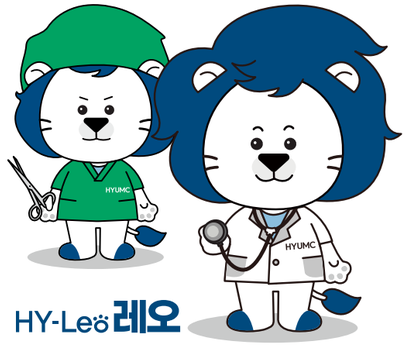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

NAVER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포스트



한양대학교병원 포스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5 로봇수술에 대한 모든것! 로보닥
다양한 질환을 좀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로봇 수술! 각 분야의 어떤 질환들을 로봇으로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양승 교수 | 이상표 교수 | 백광흠 교수 | 하태경 교수 | 정재호 교수



김진남 교수 | 김진수 교수 | 박성열 교수 | 정수 교수 | 나재윤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소식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질환 알아보기&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병원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환경개선, 연구개발, 학술지원, 인재양성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발전기금 홈페이지 QR코드

기부 분야

환경개선	연구개발	학술지원	인재양성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7

기부 방법

방법 1 약정서 제출

▶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약정서 내용 작성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방법 2 온라인 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인식
▶ '온라인 기부' 클릭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부자 명단

2024년 12월 ~ 2025년 1월

명예의 전당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김창렬 교수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김동선 교수	김지은 의대 31기, 에버피부과의원	이주학 의대 27기, 늘맑은내과의원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구리시의사회	권오균 직원	김순금 고객	최원준 의대 34기, 다채움피부과의원	박정환 교수	태양상사 고객
50만 원 이상 ~ 1백만 원 미만	국은영 교직원	오영하 교수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공상훈 직원	국인철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도윤 새움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병제 김병제내과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연주 직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 진 직원	김진녀 직원	김태완 홍익안과	남은미 직원
	박미숙 직원	박정하 직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교수	소현수 동문
	손유경 직원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양 현 직원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새움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인병원	이진규 교수	이봉근 교수	이희제 연세정형외과
	정규성 교수	정승원 산본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새움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성훈 교수
	최윤영 교수	최진미 직원	최충혁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한현수 직원	황규태 교수
10만 원 미만	권난희	권연희	김나영	김명환	김소윤	김애경
	김춘애	문병임	민지훈	박경숙	박미옥	박상혁
	박신준	박유순	박지경	박진희	서혜영	손진석
	손승희	신정미	안계현	안미경	양미영	연제호
	염주일	오기향	오정님	오홍석	유혜경	윤용호
	음희재	이경철	이승건	이의산	이정희	이현주
	임연희	임지영	전순아	주일한	진춘희	최순익
	황미현	황운택	황희복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공개 강좌!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잇몸병! 그래도 방치하시겠습니까?"

잇몸병이란 세균에 의해 치아 주위 잇몸에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심할 경우 치조골 소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잇몸병은 대다수의 성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잇몸병이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졸중, 당뇨,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전신질환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잇몸병을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주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잇몸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일시 2025년 **3월 19일** 13:30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내용 13:30 ~14:00 강의 〈잇몸병의 모든것!〉
14:00 ~15:00 교육 〈올바른 칫솔질〉

연자 **한지영**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교수
& **김우섭**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전공의

혹시 나도 잇몸병? 잇몸병의 증상!

- ☑ 칫솔질을 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난다
- ☐ 잇몸이 빨갛게 변하고 부어오른다
- ☐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치아에 힘이 없다
- ☐ 잇몸 부위가 주기적으로 근질근질하다
- ☐ 이와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
- ☐ 입에서 구취가 난다
- ☐ 잇몸에서 피가 난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 2025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오영	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 화, 수, 목	수	간질환, 간암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4주)	수,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수	담낭, 담도, 췌장
	이상표	월, 금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아일린	수	수,목,금	간질환, 간암
	박진화	목, 토(2주)	월,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호영	화, 수, 토(5주)	목, 금	간질환, 간암
	임대현	목, 금, 토(5주)	화	췌담도, 간 위, 장 내시경
심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혈관질환 예방, 심혈관중재술, 심장초음파
	임영효	수, 금	월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시술, 대동맥 판막 협착증
	박진규	월 목바동기클리닉	화	부정맥(상심실성부정맥, 심방세동, 심실부정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 도자 절제술 ※박동기클리닉목 심부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제동기 혈관초음파 치료
	허 란	화	월, 목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생인선천성 심질환 심장초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해 외 연 수(~2025.2.28.)		
	박진선	화박동기클리닉 토(2주)	월, 수	부정맥(상심실성부정맥, 심방세동, 심실부정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 도자 절제술 ※박동기클리닉(화)+심부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이동기 혈관 치료
	박수정	토(1주)	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중재시술, 심장내과 일반질환
	조하헤	목, 토(3주)	화, 금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생인선천성 심질환 심장초음파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4주)	화, 목	전해질 장애, 신부전, 복막투석, 고혈압, 부종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만성신부전, 고혈압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종욱	수	월, 목,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화, 목	월, 화	당뇨병, 뇌허수체질환 갑상선질환 각종 호르몬이상당뇨병 말단비대증
	박정환	월, 수, 금 토(4주)	수,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대사관련질환
	문신제	월, 수, 목	화,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대사관련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만성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간질성 폐질환
	손창원	목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2주)	월, 화	천식, 기침,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면역치료, 아토피치료
	박동원	월 목	수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금	화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결절, 폐암 Post-Covid 증후군, 결핵비결핵성난근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기침
	한동우	화, 수	금	일반 호흡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골수종(70세이상), 두경부종양, 뇌종양 두경부종양, 식도암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 골수종 (70세미만), 조혈모세포이식
	이종욱	화, 수, 목		재생불량성 빈혈,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감염내과	배현주	장 기 출 장		
	김봉영	월▲,화수▲,금▲	화▲, 수, 목▲, 금(3/14)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김진남	월▲,수▲,목,금▲	월 화▲ 목▲ 금(3/7,21)	감염질환 HIV/AIDS,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감염관리 활동)
	박세윤	월 화▲,목▲,금▲	월▲, 수▲, 목, 금(3/28)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및 감염관리 활동)
	윤초석	화▲,수▲,목▲,금▲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 화, 수, 금	월-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외과계	김동원	월-금	월-금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1	이재우	월-금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2	성인현	월-금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소아청소년과 2290-8380	구자욱	월, 수	화, 수	소아신장, 혈뇨, 단백뇨, 신증후군 요로감염, 야뇨증, 신장상종
	김용주	화(내시경만), 금(내시경)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소아비만 영양부진 특수 영양치료 중금속 중독, 내시경검사
	양 승	목, 금, 토(24주)	화동관중합 목동관중합 금동관중합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희귀유전질환, 희귀대사질환
	문진화		수	두통, 난치성, 발작(경련), 뇌수막염, 뇌기능장애, 신경유전대사질환, 영유아발달장애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안지혜	휴 직		
	나재윤	수, 토(3주)	화 수(심장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기잡사끼병, 소아 중환자
	임성민	월화▲목금▲토(5주)	화▲ 수 목▲ 금▲	소아 감염성 질환, 발열, 불명열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최진주	월, 화, 토(3주)	월, 목	일반소아질환, 소아내분비질환(성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 당뇨)
	유명진		화, 금	
	강윤구	월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이현주	월, 화, 수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육아지도실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영유아검진(일반)			
	예방접종(일반)			육아상담, 예방접종
신경과&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퇴행성질환(루게릭병-초진은 수요일 오후만 예약),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장애 초진),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초진은 수요일만 가능), 손떨림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김영서	월 금 토(1·5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오기욱	수▲(루게릭)	월▲(루게릭) 수▲(루게릭초진), 목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2주)	월	뇌졸중,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화 금▲, 토(2주)	월▲	퇴행성질환(루게릭병, 치매), 유전성 신경계질환, 두통, 어지럼증
	정 수	목, 토(1주)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목▲, 토(4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강일모	토(3주)	금	일반 신경과 질환
	강성우	월 수, 금▲, 토(2주)	수	치매,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 두뇌건강
정신건강 의학과 2290-8419	권준수	수, 목	월	조현병, 강박증
	노성원	월 금, 토(3주)	월, 목	중독질환(알코올, 담배, 도박, 게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2·4주)	수, 금	소아/성인 ADHD(집중력문제), 틱, 발달지연, 소아청소년트라우마, 학교스트레스, 기족치료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조울증, 조울병), 불안장애(공황장애), 우울증(주요우울장애)
	김낙영	월 토(1·5주)	화, 목, 금	치매, 노인우울증,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피부과 2290-8434	고주연	화, 금(1·3주)	월,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화,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경피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주민숙	수, 목, 금	월,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상부위장관	하태경	화	월(비만)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로봇 위암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해 외 연 수(~2026.2.28.)		
혈관	최지윤	화, 금	수	혈관외과, 신장이식
췌장, 간담도	이경근	목	화	간, 담도·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간이식,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 항문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박성실	화	금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유방, 갑상선	정민성	목	월, 목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로봇수술
	차치환	수	화, 수	유방암, 로봇수술
	문소현	월	금	유방암, 로봇수술
갑상선, 부갑상선	박신정	목	금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부갑상선암, 내분비외과, 부신질환, 로봇질환, 양성유방질환
외과 질환	손준혁	금	화	소아: 소아외과질환 성인: 성인 탈장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장질환
심장혈관 흉부외과 2290-8461	장효준	월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 기흉,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송승환	목	화	흉부중양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부기형(오목가슴, 새가슴) 기흉, 대환종, 흉부외상 (2/13 휴진), (2/10) (화)휴진~2/17(월) 변경(서울주관)
	김현수	수, 금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 동장애루, 말초혈관질환 (말초동맥 협착증 및 폐쇄, 신부전에 혈액증 및 폐동맥색전증)
	김연수	화	목	폐, 식도, 흉강경 수술, 하지정맥류, 누두흉, 대한증
정형외과 2290-8473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수	월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해 외 연 수(~2025.7.31.)		
	최성훈	금	화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배근형		화, 금	소아정형(소아골절, 족관절, 고관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경추클리닉	백광흠	월, 수		요통, 디스크(머리, 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목요일 오전 경추클리닉(요추 재진진료도 가능)
	최규선		월,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금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홍승우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및 동정맥기형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한건희	화	금	뇌혈관질환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2290-8560	김연환	화, 목	화	상하지재건, 화상 및 외상후 재건, 욕창, 골수염, 미용성형(코), 두경부암재건
	장란숙	월	월, 목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소아성형, 안면외상, 만성창상, 레이노 증후군
	김효성	화	수, 금	미용성형(눈), 양성종양, 만성창상, 욕창
	김지영	수, 금	월	유방성형 및 유방재건, 피부암, 안면외상, 흉터&켈로이드, 안면마비재건, 림프부종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월, 화, 목	여성생식, 갱년기, 불임상담(난임시술X)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화, 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토(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24주) 목요일 오전: 여성암생존자클리닉
	이원무	화, 금, 토(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 수, 토(2주)	금	일반산부인과
	임한웅	화	월, 목	성인사시, 매바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 금	화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수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김유정	월, 금	수	각막질환, 건성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소그렌증후군, 백내장
	김지홍	월, 목	수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박혜민	목	화, 목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토(3주)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내시경수술, 코성형
	송창면	목	화(클리닉), 목(음성클리닉)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정재호	화, 목, 토(2주)	화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안면신경질환
	한상윤	수, 금, 토(1주)	월, 수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전이개누공,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화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해 외 연 수(~2025.8.31.)		
	윤영은	월, 화	월, 화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비대증
	정규환	수, 금	수, 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일반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최수진	월▲(관절종류별목)	화,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통증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CT sim	박혜진	월, 화, 목	화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신경과 침샘치료, 방관암연구환자(p.박권오)
	정주현	수, 금	월, 수	부인암, 전립선암, 소화기암, 림프종, Sarcoma, Brain Tumor, 기타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 치료
치과 2290-8671	황경균	월, 화	월, 화, 목	턱얼굴성형(기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타액선)질환,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임플란트, 잇몸/뼈이식술, 턱얼굴 성형수술, 턱얼굴 골절수술, 기타 구강외과 수술
	한지영	월, 화, 수, 금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화, 금	월, 화,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월, 수, 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중장년교정, 소아교정(치아맹출장애, 턱성장조절, 예방교정), 소아예방치료(불소, 홈메우기), 소아충치치료
	인희진	월, 화, 수, 목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충치치료
	일반	월~금	월~금	일반진료
	스케일링	수, 목, 금	수, 목, 금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화,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금	수	노인의학, 금연, 비만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황환식		화, 금	
	박계영	화, 금	수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화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이수진	월	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김인아		월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수(1·3주), 목, 토(3주)	수(1·3주),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김양우	수(2·4주), 금	수(2·4주), 금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일반	월, 수, 목, 금, 토(3주)	금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골관절염2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목, 금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증
	김태환	화, 수, 목, 토(4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프스, 골관절염
	조수경	월, 수, 목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최세림	수, 목	화,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김용범	금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발크리닉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6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월	쇼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질환 관련 건성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4주)		포도막염, 류마티스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센터 2290-9550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주)	금	가정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5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통합내과	일반			모든 내과 분과의 일반내과 진료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경화증,간암
	한동수	목	화	위장관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위장관질환 기능성위장질환 위질환 대장질환 용종절제술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용종절제술
	안지현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경화증,간암
	주현돈	월, 화, 목		췌장질환 담도질환 담석증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오은혜			위질환 식도질환 대장질환 대장종양 위종양 식도종양 염증성장질환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치료내시경
	이재곤	월, 화	금	위질환, 대장질환
	정병욱	수, 금, 토(1주)	화	위질환 대장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소장내시경 용종절제술 위암 대장암 내시경절제술 염증성장질환
	김하일	금	화, 수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경화증,간암
심장내과	박환철	화, 목, 토(1주)	수	부정맥성질환 심방세동, 심실빈맥/동기능부전증후군 서맥형부정맥, 혀혈성심혈관환자 스텐트시술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신정훈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심부전 대사증후군
	김병식	월, 수, 토(2주)	목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 중재 시술,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주)	수, 금	관상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중증이지혈질환 대동맥질환 구조심질환
	김현진	금, 토(4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신장내과, ▲클리닉	한상웅	월, 수, 목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 수▲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 금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선민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목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증양 일반 내분비질환
	홍상모	화, 금, 토(1주)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 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섬유근통 혈관염 소그렌
	방소영	화, 금, 토(1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척추염 통풍 골관절염 베체트병 소그렌 염증성근염
	주영빈	월, 목, 금, 토(1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소그렌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목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박태선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여유미	화, 수	금	간질성폐질환, 폐암, 결핵, (COPD, 천식
	곽현정	화, 수	월, 목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한경일	목, 금	월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원영웅	월, 수, 금, 토(3주)	화, 수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완화의료, 복합병, 골수형성이상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토(13주)	목,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태은	금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 금	월, 화	소아정형환 경련 열성경련 낯가림 낯선 사람 두통, 편두통, 이지러움, ADHD, 발달지연 발열감수 뇌파검사
	최영진	월, 수, 토(2·3주)	월, 수,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모세기관지염, 폐렴, 소아알반질환 변비, 설사, 복통, 소아감염
	최윤수	화, 금, 토(2주)	화, 수, 금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 당뇨,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장 기 연 수		
	나재윤	금	금	소아청소년 심장질환, 청색증, 기외사키병, 심잡음, 고혈압, 혈관질환, 부정맥, 실신, 성인선천성심장병
	황제균	화, 목		신생아황달, 미숙아황달, 영아황달, 예방접종, 국가영유아검진, 육아상담
	유지선	월, 토(4주)	월, 수	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질환, 당뇨, 비만, 지방간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 화,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 토(3·5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박성호	월, 수, 토(2·4주)	금	
	일반		화, 목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	김대호	수, 목, 금▲	월, 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월▲,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재발성우울증
	박선철	해 외 연 수		
	윤진웅	월, 화, 토(2·4주)	목, 금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소아발달장애, 소아ADHD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2주)	화	조기진통, 조산, 고위험 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치료, 단일공법 복강경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자궁하수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부인자궁암 난소암 단일공법 복강경 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부인암클리닉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진환	월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내수술(뇌혈관내수술인증의), 두부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류제일	화, 수, 토(2주)	화▲,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한명훈	해 외 연 수		
	원유덕	금, 토(5주)	월, 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기형, 혈관내수술, 뇌외상
	하병진	목, 토(4주)	월, 화	터널증후군(신스템)증, 척추외상, 척수종양, 척추내시경수술, 통증전자시술
	강상묵	월, 목	수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 내 수술, 두부외상
	나민균		금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고신웅	화, 금, 토(3주)	목	
심장혈관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금	심장질환(관상동맥,심장판막질환,심장종양),대동맥질환,폐질환, 동정맥류, 말초동맥질환,하지정맥류등),흉부외상,기흉,ECMO
	최수환	월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기흉, 대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막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터널증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척추기형성 강직성척추염 척추손상 경추질환 및 척추관협착증
	박기철	수, 금	월	외상클리닉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골수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정규성	화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
	조영훈	화, 목	월	견주관절 관절경 스포츠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질환 슬무외과클리닉(미세수술) 골절 및 외상
	이영석	월, 토(2주)	화, 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토이드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경
	소재완	목, 토(3주)	화, 수	터널증 경추요추 질환 경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요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경추요추 외상 척소 침습적 척추 수술 미세 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김현준	토(4주)	목, 금	척추 일반 질환 경추, 흉추, 요추
	김성재	월, 금	월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말초신경수술 수부재건 유방성형 당뇨발 욕창
	이장현	화, 토	목	안검하수 안면기형(안면골피부임플란트 임플란트 유방성형 유방재건 당뇨발 신체감정
	장정우	월, 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수	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성형 당뇨발 미용성형
외과, 유방클리닉▲	박환경	월, 목	화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줄기세포 치료, 연구, 제대혈줄기세포 클리닉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토	월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위폐암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김형석	월, 목, 토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외과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김현일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조유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탈장, 소아외과질환, 성인탈장
	황성환		화, 금	항문질환, 일반질환
	최광우	금	월, 목, 금▲	동정맥류, 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 말초혈관질환, 중심정맥관, 복부대동맥류, 신장이식
	박예종	수, 금	수	간담췌 외과, 복강경 수술
	일반			
안과, 클리닉▲	강민호	화, 목, 토(1주)	월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시각장애인스포츠
	신용운	월, 목	월▲, 수, 목▲	망막질환 유리체질환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안종양레티나
	홍은희	화, 토(3주)	수, 금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자시력, 신경망막염 선행안과 눈물길 클리닉
	황선진	수, 토(4주)	화, 수▲, 금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윤주영	월, 토(2주)	화, 목	녹내장, 고안압증, 백내장
	홍림경	금, 토(5주)	월	백내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일반 안과질환
피부과	김정수	월,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사진마귀성질환 건선 내성볼록
	서현민	수, 토(2·4주)	월, 수, 목, 금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지루편평태선 피부염, 피부감염
	일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3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및 코혈관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비후비염 중이 고막형
	지용배	월, 목, 토(5주)	화	두경부종양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수술 경부종양 음성language 생대결절
	정선민	수, 토(4주)	월, 금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부비동염 내시경부비동수술 비중격수술,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이비인후과경염질환, 알레르비인후과질환
	서희원	목, 토(2주)	월, 수, 금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목, 토(3주)	월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의학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남성과학
	심영선	월, 토(4주)	수,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다빈치로봇수술 복강경수술 소아비뇨기과질환 전립선질환 결석
	송병도	화, 토(2주)	월, 금	배뇨장애, 비뇨기계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소아재활,스포츠의학,뇌신경재활 도수치료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보행분석,족부질환 도수치료
	박재현	월	화, 금	근골격계재활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질환 운동치료 도수치료
	윤여준	목, 금	월	뇌질환재활(외상성뇌손상 뇌졸중,의식장애 파킨슨병), 삼킴장애, 경직치료 도수치료
치과	박원희	월-목, 토(3·5주)	수	생리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상악동거상술 치아미백 턱관절질환 치주질환
	김윤영	화, 금, 토(2주)	월, 화,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주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형두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여성암(난소암, 유방암) 유전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수술 마취전 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수, 금	월	급 · 만성 통증관리 및 치료
	박형준	화, 목, 토(1주)	수, 목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섬유근통 혈관염 소그렌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강직척추염 통풍 골관절염 베체트병 소그렌 염증성근염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소그렌 혈관염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목		근골격계재활,소아재활,스포츠의학,뇌신경재활 도수치료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목	근골격계재활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질환, 운동치료,도수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척추내시경),신경계종양,척추외상(외상외과세부전문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10:30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안전 수호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상계획계 산업안전관리 담당

최지훈 기사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는 병원의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산업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최지훈 기사는 병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다양한 곳을 점검하며 협력업체별 작업장을 살펴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각종 안전보건 서류 작성까지 책임지는 그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 이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병원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